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87호 【루계 제25430호】 주체105(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질풍노도쳐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

북부전선에서 보내온 소식

100세대의 살림집지붕공사 결속

조선인민군 리승규소속부대에서

경흥땅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제일먼저 안아올 일념으로 폭풍쳐 내달려온 조선인민군 리승규소속부대 군인들이 10월 11일까지 부대가 맡은 읍지구 100세대 살림집들의 색철판지붕공사를 결속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마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강군의 위력을 계속 떨치며 대고조진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고 경흥군에 도착한 그날부터 이곳 부대군인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백열전을 벌리며 기적과 위훈창조의 앞장에서 내달리였다.

그들은 불과 며칠 안되는 짧은 기간에 수만장의 블로크를 찍고 수천㎥의 토량을 처리하였으며 많은 량의 막돌을 채취하여 경흥군 인민들에게 백두산혁명강군의 필승의 기상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부대의 지휘관들은 골재확보, 철근가공, 목재보장 등 전투조직과 지휘를 면밀히 짜고드는 한편 대오의 앞장에서 돌격로를 열어나갔다. 부대의 정치일군들은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차게 진행하였다.

경흥땅을 진감하는 화선선동의 힘있는 북소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할 일념으로 충만되여있는 군인들의 열의를 더한층 고조시키였다.

부대장병들은 단숨에의 기상으로 50동에 100세대의 살림집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9월말까지 기초공사와 벽체측조를 결속하고 련이어 벽체내외부미장, 층막치기, 지붕목조공사에 진입하였다. 관하부대별, 공정별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타번져 10월에 들어와 시간을 다투며 공사성과가 확대되는 속에 11일까지 색철판지붕공사를 끝내는 승전고를 울리고야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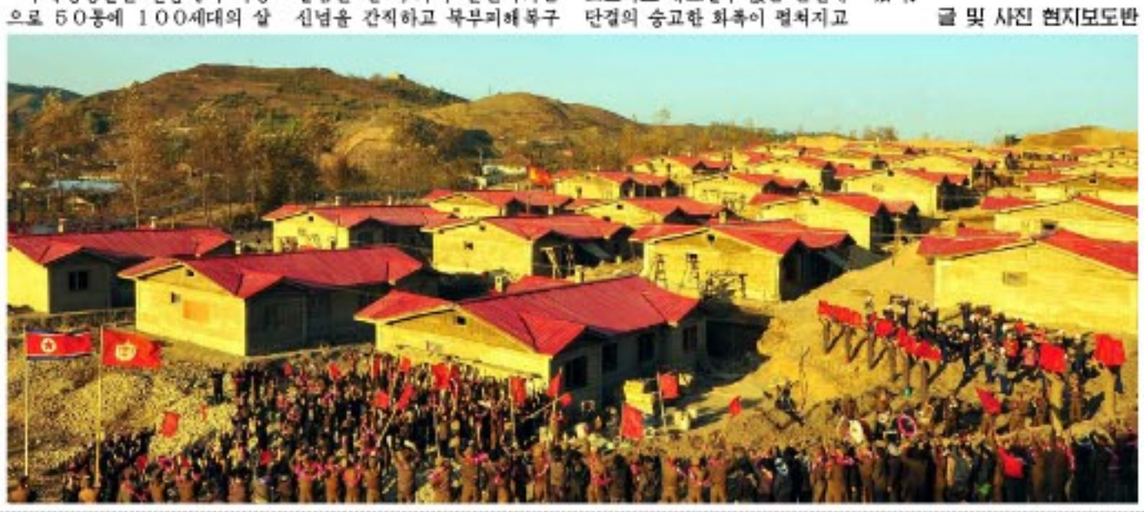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결심은 곧 우리의 실천이라는 신념을 간직하고 북부피해복구전투장적으로 제일먼저 맡은 살림집의 색철판지붕공사를 결속한 부대장병들의 기세는 지금 하늘을 찌를듯 높다.

부대지휘부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살림집들의 온돌미장과 부엌, 세면장타일붙이기, 지대정리를 병행하여 힘차게 내밀도록 하고있다.

결사관철의 정신이 맥동치는 살림집건설전투장에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으릴수 없는 군민대단결의 승고한 화폭이 펼쳐지고있다. 군의 책임일군으로부터 평범한 녀인들 지어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인민군군인들과 한 전호에서 골재운반과 블로크운반, 지대정리와 상하차작업을 진행하고있다.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완공의 그날을 앞당겨가는 부대의 장병들과 군내인민들의 얼굴마다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승리의 신심과 락관이 더욱 비껴흐르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피해복구전투장에 선전선동의 화력 집중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

북부피해복구전투장에 함경북도안의 선전선동력량이 총집중되여 피해복구전역을 들썩놓고있다.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적창조에로 부르는 직관선전판들과 전투적구호들이 피해복구전투장곳곳에 나붙고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고있다. 방송선전차활동, 경제선동활동, 집중강연선전대활동이 활발히 벌어져 북부전역이 당중앙위원회 호소문관철을 위한 앙양된 분위기로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매일 수백개 단위의 수십만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식의 선전선동이 참신하고 기백있게 벌어지는 속에 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군인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적과 혁신창조에로 출발음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을 강도높이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북부지구의 시, 군들이 큰물피해를 입은 즉시 피해지역으로 달려나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피해지역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을 감동깊이 해설해주면서 오늘의 시련을 과감히 이겨내고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자고 힘있게 호소하였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당보를 비롯하여 출판물들을 피해지역들에 신속정확히 보내주며 통신망을 하루빨리 복구하여 당의 목소리를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한시바삐 전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였다.

책임일군을 비롯한 도당위원회의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피해지역들에 달려나가 그 어떤 대재앙도, 그 어떤 난국도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지 못한다고 하면서 광범한 대중을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적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리하여 도당일군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우렁찬 혁명가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선동자료, 강연자료, 해설담화자료 등 수십건에 달하는 교양자료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감있게 진행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근로단체조직들에서도 피해지역들에 달려나가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소년학생들이 경제선동과 취주악대활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도녀맹위원회에서는 녀맹원들로 경제선동대를 맺고 전투현장에 달려나가 힘있는 지원사업과 함께 매일 수천명의 건설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도예술단을 비롯한 도안의 예술인들도 피해복구전투장의 곳곳을 주름잡으며 구두선동, 직관선동, 예술선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경제선동을 기동성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도안의 작가들은 건설자들과 침식도 같이하고 일도 함께 하면서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베풀어지는 어머니당의 사랑과 은정,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기상과 혁명적열의를 담은 감화력있는 급작품들을 수많이 창작보급하고있다.

대중의 심금을 울리며 힘있게 벌어지는 여러가지 선전선동활동은 북부피해지역의 모든 전투장들이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고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현지보도반

북부전선에 철강재를 최우선적으로

금속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멸처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키다란 격동속에 받아안은 금속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더 많은 철강재를 보내주기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함북도 피해복구현장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금속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면서 철강재생산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철의 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가 철강재증산투쟁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련합기업소당조직에서는 곳곳에 혁명적인 구호들과 전투속보판들을 게시하고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앙양된 로동자, 기술자들의 열의를 총폭발시켜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용광로직장의 로동계급이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면서 철강재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다. 특히 열풍로관리와 설비관리에 큰 힘을 넣고 용광로의 정상가동을 보장하여 매일 많은 량의 쇠물을 뽑아내고있다.

소결1, 2직장에서는 설비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질좋은 소결광을 생산보장하고있다. 강철1직장의 로동자들은 3일은 실히 걸려야 할 로보수를 30여시간동안에 해제끼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철거동률을 높이고 각장의 질을 끌어올리고있다.

그리하여 김철의 로동계급은 철도피해복구에 필요한 선철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고 매일 많은 량의 각강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도 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철강재생산을 훨씬 늘이면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보산제철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희천로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면서 주체철생산을 늘어나가고있으며 강철직장에서는 로조작방법을 개선하고 원료장입에서 주체철비중을 훨씬 높여 매일 많은 량의 쇠물을 뽑아내고있다. 특히 압연직장에서는 서로의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가열로를 정상가동시켜 철강재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과학적인 용해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중량배루와 환경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용광로직장에서는 과학적인 조작방법으로 산소열법에 의한 용광로의 정상가동을 원만히 보장하여 주체철의 질과 량을 다같이 높이였다. 강철직장의 용해공들은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초고전력전기로의 정상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와 청진제강소의 로동계급도 철강재생산에서 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특히 청진강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뚫고나가면서 지난 9월 철강재생산계획을 10여일동안에 수행하였으며 그 기세로 10월에 들어와서도 매일 계획보다 훨씬 많은 량의 철강재를 생산하고있다.

당의 호소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하여나선 금속공업부문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철강재생산성과는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고있다.

현지보도반

날로 더욱 고조되는 지원열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평안북도에서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에서 북부피해지역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물자를 최우선적으로 마련하여 화물렬차로 보내주고있다.

도에서는 지난 9월 중순 북부피해복구에 필요한 물자를 실은 첫 렬차를 떠나보낸 때로부터 지금까지 수십량의 객차와 화차들에 수천명의 로력과 창문틀, 출입문, 전기선, 상수도관, 배수관 등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많은 물자를 실어 신의주청년역을 출발시키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들과 시, 군급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 북부피해복구에 필요한 로력과 물자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모든 힘을 총동원, 총집중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와 강원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피해지역 인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리고있다.

강원도에서

강원도당위원회에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심장에 새겨안고 떨쳐나선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도, 시, 군소재지와 주요전투장마다에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구호들을 게시하고 강력한 선전선동력량을 총동원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도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 북부피해복구전투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생산투쟁과 지원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도인민위원회에서는 북부피해지역 살림집건설과 피해복구에 필요한 물자와 설비,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그것을 화차에 제때에 실어 떠나보내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빼기있게 해나가고있다.

신의주철도분국에서는 북부전선에 보내줄 물자들을 최단기간내에 수송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짜고들어 지금까지 수십량의 화차를 떠나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북부전선을 직극 지원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화물렬차들이 계속 북부전선을 향하여 출발하고있다.

특파기자 손 창 윤

북부피해복구전투에 절실히 필요한 세멘트수송과제를 맡은 원산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상선조직을 짜고들고 항만기중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 최전방인 북부전선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고있다.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에 세멘트증산성과로 화답해나선 천내리세멘트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전시생산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북부전역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기 위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수지관생산을 맡은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내부예비를 총동원하고 설비가동률을 높여 짧은 기일에 계획한 수지관생산과제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원산유리병공장 로동자들은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은 즉시 증산투쟁을 벌릴것을 결의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계획외에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내줄 10만여개에 달하는 유리그릇을 더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안의 인민들이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행과 아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세멘트수송전투로 들끓는 원산항으로 달려나간 원산시의 녀맹원들은 한의 세멘트라도 북부전선에 더 빨리 보내주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조선녀성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도안의 많은 단위들과 주민들도 북부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식량과 의복류, 생활필수품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고있다.

도안의 대학생들과 청소년학생들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한마음안고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과 위문편지들을 북부전선으로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고있다.

북부전선으로 달리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지원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특파기자 신 천 일

수송실적이자 피해복구속도, 맹렬하게 벌어지는 사회주의경쟁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수송전사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일대 사상전을 벌리고 사회주의경쟁을 벌리 조직하여 건설장마다에 비약의 열풍, 결사관철의 기상이 나래치고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랑만이 차넘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할 일념으로 온 나라가 떨쳐나서고있는 지금 철도성에서는 북부전선철도수송사회주의경쟁이 맹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성적으로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수송하는 중요물동량은 하루평균 사회주의경쟁전보다 1.5배이상 되고있다.

세멘트수송실적만 놓고보아도 수송계획을 일평균 130% 이상으로 넘쳐 수행하여 10월 11일현재 북부전선에 보내줄 세멘트계획의 91.9%에 해당한 세멘트가 현지에 도착하거나 수송중에 있다.

성일군들과 미더운 수송전사들은 전시수송을 보장하던 전화의 용사들처럼 물동수송전투를 줄기차게 내밀어 복구전투에 필요한 중요물동들을 계획한 날자보다 훨씬 앞당겨 현지에 도착시키고있다.

지난 9월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자는 당중앙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함북도 피해복구중앙지휘부와 직총중앙위원회, 철도성당조직에서는 북부전선으로 물동수송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해당 철도국들과 철도분국, 역, 대호상간, 기관사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였다.

성당조직에서는 기관차들에 구호를 게시하고 화차마다에 붉은기를 휘날리도록 하는것을 비롯하여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일군들이 기관차, 화차들에 올라 화선식정치사업으로 수송전사들을 고무하고 위훈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성에서는 북부전선철도수송지휘를 전시체계로 전환시키고 단계별, 부문별과업을 제시하였으며 매일 화상회의를 열고 사회주의경쟁실적을 총화하고 순위를 발표하여 전국의 수송전사들을 사회주의경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수송지휘부문에서는 하루평균 수백량의 화차들을 북부전선으로 수송하기 위한 배차조직을 치밀하게 하는것과 함께 긴급배차조직과 렬차지휘를 짜고들어 최대의 수송실적을 내도록 하고있다.

객화차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화차수리, 정비를 제때에 하며 전시수송지휘체계에 맞게 객화차대렬이동수리를 조직하여 수송보장을 원만히 하고있다.

기관차부문에서는 내연, 전기기관차들의 최고실동기대수를 보장하고있으며 역사업부문에서는 점실기, 부리기작업을 최단시간동안에 끝내고 화차회귀일수를 줄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밖에 철길부문, 급전부문, 정보통신부문들에서도 수송에 필요한 물질적조건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나가고있다.

사회주의경쟁에 참가한 평양철도국, 함흥철도국, 청진철도국들과 그 아래단위들에서 치렬한 경쟁열풍이 휘몰아치고있다.

사회주의경쟁에서 단연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는 평양철도국의 수송실적은 일평균 140%를 기록하고있다.

국에서는 사건에 역들에 통보체계를 세워 화차무이를 합리적으로 하고있으며 상차지역들과 련계를 강화하고 점실기시간을 단축하여 짐을 실은 렬차들이 제때에 출발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신성천철도분국아래 거차렬차검사중대의 로동계급은 일평균 500여량에 해당한 화차의 제동검사를 진행하여 무사고운행을 보장하고있다.

함흥철도국에서도 물동수송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철도국당조직에서는 일군들을 원산항역, 흥남항역을 비롯한 중요전투장들에 파견하고 직외강연강사들로 집중강연선전대를 조직하였으며 전시가요를 통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국에서는 평양철도국에서 보낸 수송물자들을 인계받아 북부전선으로 직송하는것과 함께 여러 항으로 실어나르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으며 함흥과의 련계밑에 하차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있다.

청진철도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집중수송렬차들을 제때에 현지에 도착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국에서는 집주기관차대를 전형단위로 정하고 따라앞서기, 따라때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높이 드세찬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키고있다.

이번 사회주의경쟁에서 주목되는것은 기관사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이 진행되고있는것이다.

무사고운행은 물론 자전소운전, 자전차갈이를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기관사들의 높은 자각과 기술실무능력이 검증되고있으며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수송실적이 날로 높아지고있다.

이들은 지금 북부피해전선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할데 대한 우리 당의 피끓는 호소를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전화의 기관사들처럼, 5.18무사고정시건인초과운동의 선구자들처럼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기수가 될 일념으로 자기의 책임성과 역할을 다해나가고있다.

평양시, 평안남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라선시당위원회들에서도 북부전선철도수송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고있다.

수송실적이자 피해복구속도라고 한 우리 당의 호소문의 구절과 같이 전국의 관심속에 철도운수부문에서 일어나고있는 기적과도 같은 성과는 멀지 않아 려명선을 북부전선에서의 대승리를 예고하고있다.

전 혜 영

— 평양조차장역에서 —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10월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우리의 성스러운 당기가 세차게 펄럭이고있다.

마치와 낫과 붓을 새기고 휘날리는 우리의 당기, 세기와 년대를 이어 승리만을 기록에 아로새겨온 우리의 당기발을 우러르는 천만군민의 가슴은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을 뿌리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바로 여기에 이 세상 그 어느 당도 지닌적이 없는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으로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치며 력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영광과 존엄, 긍지가 있는것이다.

천만군민은 장장 수십성상 조선로동당을 필승불패의 강위력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억센 신념과 불타는 열정으로 심장을 세차게 끓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여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당이다.》

지 멀리 험한 령을 넘어 걸어온 우리 당의 자랑찬 투쟁의 길에도, 영광에 넘친 승리의 길에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있으며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도, 우리 당이 지닌 불패의 위력과 높은 권위도 백두산위인들의 성스러운 존함과 결부되여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당건설의 길은 독창적인 전인미답의 로정이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우리 혁명을 이끌어나갈 당을 창건하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으며 그처럼 어려웠던 항일혁명의 나날 당창건의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와 빛나는 혁명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

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밝히며 겹쌓인 난관을 헤치시느라 그이께서 걸으신 사선의 천만고비는 그 얼마였고 낮에 밤을 이어 이으신 사색과 탐구는 그 얼마였던가.

《ㅌ.ㄷ》의 결성으로부터 카륜회의, 첫 당조직—건설동지사의 결성, 국내당조직의 결성,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결성과 남호두회의, 조국광복회 창립…

이렇듯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에서 지체없이 력사적인 당창립대회를 소집하시고 우리 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주체34(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자기 운명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진정 우리 당을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전투적당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신 여기에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이 있다.

당의 위대성은 곧 수령의 위대성이다.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동지의 당,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백승의 력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

오늘도 우리의 귀전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 력사의 자욱을 새기시던 그 나날에 하신 교시가 뜨겁게 들려오는듯싶다.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 이것이 나의 필생의 과업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

백두에서 추켜든 혁명의 붉은기를 펄펄 날리며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수할 철의 신념과 의지를 뜨겁게 확언하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세계 당건설사에는 당의 령도자들이 많았지만 이렇듯 웅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가장 철저히 실천한 위인은 아직 없었다.

오직 혁명의 천만리, 광명한 미래를 환히 내다보시는 비범한 선견지명과 탁월한 예지, 불변의 신념과 환강한 실천력을 지니신 희세의 친솔위인이신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실천하실수 있는 거창한 위업이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를 분석총화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으로만 불리우는 자주시대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신 위대한 장군님,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그해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교시가 우리의 심장을 울려준다.

혁명투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이 100%가 아니라 500%, 1 000%로 삶는 투사가 되여야 한다!

진정 진당에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싹 차넘치게 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식대로 진행해나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당이 력사의 돌풍속에서도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굳건히 고수하며 조국과 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이끌어올수 있은것 아니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인간개조, 자연과 사회개조령역에서 거대한 전진이 이룩되던 1970년대와 전당, 전군, 전민이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여 수령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막강한 국력을 펼쳐나가던 혁명의 년대를 우리는 잊을수 없다.

시련의 가시덤불길을 억척스케 헤쳐온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우리 천만군민은 희세의 위인을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신것이 얼마나 크나큰 행운이며 영광인가를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력사의 광풍이 휘몰아치던 준엄한 그 시기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 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어버이수령님식을 가장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력사의 나날에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수령님 높이 추켜드시였던 선군의 총대로 조국수호,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마련하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정녕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어버이장군님의 특출한 당건설업적을 돌이켜볼수록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찬연히 빛을 뿌리는 존엄높은 우리 당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 다함없는 신뢰의 정이 더욱 세차게 넘쳐나고있는것이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계승문제는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며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이 숭고한 뜻을 철리로 굳게 새겨안으시고 우리 당의 력사를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령도의 빛나는 계승의 날과 달로 장엄히 아로새겨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령님의 후손들이며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가 어떤 신념과 의지, 도덕의리심을 가지고 자기 수령을 받들어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떨쳐나섰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과 결부되여있으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이다. …

이렇듯 숭고한 뜻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이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라는것을 당규약에 명문화하도록 하시여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불패의 혁명적당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고 줄기차게 투쟁하여온것처럼 앞으로도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는 웅지를 안으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 당이 영원히 태양의 존함으로 빛을 뿌리도록 해주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창건후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는 력사적투쟁속에서 주체의 혁명적당,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계승해나가기 위해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은 전투력있고 세련된 조선혁명의 정치적참모부로 더욱 강화되고 당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는 억척불변의것으로 되였다.

어디 그뿐이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꿋꿋이 이어가시며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이 땅우에는 인민사랑의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뜨겁게 펼쳐지고있는가.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나날은 조선로동당의 력사야말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령도의 빛나는 계승의 력사이라는것을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주체의 붉은 당기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렇다.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높이 부르며 경애하는 원수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질풍노도쳐나가는 백두산대국의 장엄한 기상을 그 어떤 힘도 가로막지 못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당은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당으로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며 불패의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역새세 걸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감철남

력사에 새겨진 고귀한 가르치심

당의 불패성의 담보

20여년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군대로서 조선로동당의 기발, 붉은 기발을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과 군대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적당은 군대가 총대로 보위해주어야 그 불패성이 담보되며 혁명군대는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고 당이 군중을 조직동원해주어야 무적의 힘을 발휘할수 있다고, 당과 군대가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원쑤와도 싸워이길수 있으며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이자 군대이고 군대이자 당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당이자 군대, 군대이자 당!

그이의 교시는 새기면 새길수록 심오하여 일군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참으로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독창적인 혁명철학이였다. 일군들은 선군위업의 불패성이자 곧 당의 불패성이라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추호도 양보할수 없는 원칙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로동계급의 당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혁명투쟁의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는것만큼 그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혁명적원칙, 로동계급적선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시였다.

혁명적원칙앞에서는 절대로 예누리를 모르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승승한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투쟁의 환경과 조건은 달라질수 있어도 사회주의의 근본리념과 요구는 달라질수 없다고,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투쟁에서 혁명적원칙을 버리는것은 곧 투항과 변절을 의미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는것은 우리의 신념이고 결심인것만큼 사상에서도 경제에서도 철두철미 우리 식대로 해나가야 한다고, 일심단결의 위력, 정치사상적위력을 발동하고 우리 제도의 우월성, 자체의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이 우리 식이고 주체식이며 자신의 정치방식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주체의 사회주의를 지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것은 추호도 양보할수 없는 우리의 철석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라

어느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한 나라에서 당과 대중이 리탈되여 엄중한 사태가 빚어진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당이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의 편에 서서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야 하며 인민의 지지와 신뢰속에 있어야 한다고, 우리 당은 인민을 선생으로 여기고 인민들속에 말을 붙여야 한다고, 당이 인민을 떠나 물우에 뜬 기름처럼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인민들과 한덩어리로 휘몰려 인민들이 당일군들을 졸졸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때에만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수 있고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고귀한 진리가 담겨져있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일군들은 우리 당일군들을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하는것이 혁명의 성패와 관련되는 근본문제라는것을 다시금 심장에 또아박았다.

본사기자 김성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말라보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오비앙 느게마 므바쏘고각하

나는 적도기네독립 48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아울러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10월 12일 평 양

대학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여갈 결의에 넘쳐있다. —평양철도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김종혁 찍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키자》 발표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키자》** 발표 50돐기념보고회가 12일 만수대창작사 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안동춘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미술부문 일군, 창작가, 교원, 연구사, 출판부문의 기자, 편집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성민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55(1966)년 10월 16일에 고전적로작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키자》**를 발표하신것은 주체미술건설과 발전에서 전환적계기를 열어놓은 중대한 사변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에는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구현할데 대한 문제, 미술창작의 대중화와 보급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를 비롯하여 주체미술발전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명시되여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민족미술건설의 지침이 마련됨으로써 우리의 미술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굳건히 고수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미술부문에서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명작들을 창작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는 주체미술발전사에 력력히 새겨져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들을 혁명투쟁과 사회주의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주제의 명작들이 수많이 창작되여 당의 사상교양사업에 적극 이바지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미술건설사상의 정당성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주체미술발전사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수령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는것이 사회주의미술의 내용에서 핵을 이룬다는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천명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위대성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대기념비창조사업을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미술론》**은 주체의 미술건설사상, 미술형상리론, 미술창조방법을 전일적으로 종합체계화한 우리 식 미술리론의 대백과전서, 자주시대 미술창조와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개척하시고 발전풍부화시키신 주체적미술건설사상과 업적이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독창적인 미학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 높은 단계에로 계승발전되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며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한 수령형상미술창조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주체미술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속에 다양한 주제의 수많은 미술작품들이 명작으로 창작되고 주체적산업미술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주체미술발전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 고매한 풍모를 깊이있게 형상한 명작, 력작들을 창작하여야 합니다.》

보고자는 미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들앞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미술창작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명작, 력작으로 수령을 옹위하고 혁명을 보위하며 당의 척후대, 나팔수로 복무해온 전세대들의 투쟁전통을 이어받아 영원히 우리 당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사상전선의 기수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미술부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대성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국보적인 명작들과 만리마속도창조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과 생활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미술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미술교육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모두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미술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실천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신미리애국렬사릉에 렬사들의 유해 새로 안치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고 사회주의조국의 무강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친 렬사들의 유해가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새로 안치되였다.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와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혁명의 길, 애국의 한길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실장이였던 리총수와 전 재미동포전국련합회 고문 선우학원을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성장하여온 리총수는 20년간 과학연구사업에 자기의 창조적지혜와 정열을 깡그리 바쳐왔다.

그는 정밀한 군관의 자식을 어엿한 과학자로, 로력영웅으로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할 일념안고 많은 첨단연구과제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수행하였으며 이 나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뚜렷한 생의 자욱을 남기였다.

선우학원도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흠모심을 간직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해외동포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애국애족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왔다.

그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조국통일방침들을 적극 지지하여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괴뢰매당의 파쑈독재를 규탄하는 많은 도서와 론문들을 집필하고 강연활동을 힘있게 벌려왔으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박해와 방해책동에도 굴하지 않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위업실현에 헌신하였다.

렬사들의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들이 신미리애국렬사릉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과 유가족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의식들에서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서 렬사들의 삶이 빛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유가족들이 렬사들의 투쟁기풍과 정신을 따라배워 무강조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묘들에 렬사들의 유해가 안치되였다.

참가자들은 렬사들의 묘에 화환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그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유가족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당의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렬사들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우에 부강하고 통일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결의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영광의 10월 우리는 김일성광장의 포석을 거닐고있다.

조선의 승리와 영광이 빛발친 력사의 지점에 서니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장에 차넘쳤던 격정의 파도가 또다시 우리의 가슴에 밀려온다.

우리 인민이 심장으로 받아안았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이 오늘도 들려온다.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

진정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시는 가장 열렬한 축하였고 이 나라 천만군민이 세기와 년대를 이어 폭풍처럼, 피줄처럼 간직하여야 할 어머니당의 고귀한 믿음과 사랑이 아니였던가.

우리 당은 오늘도 래일도 인민을 믿고 위대한 리상의 설계도를 펼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젊음과 활력에 넘치는 조선로동당을 따라 하늘땅 끝까지라도 가고갈 철석의 신념과 명세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이민위천의 한생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조선을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사상과 업적을 귀감으로 삼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할것이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갈것입니다.》

지금도 뜨거운 격정속에 메아리쳐온다.

이민위천은 어버이수령님과 자신의 좌우명인 동시에 김정은동지의 좌우명이라고, 김정은동지는 앞으로도 인민의 충직한 아들로서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뜻깊은 교시.

우리 당의 품은 곧 수령님과 장군님의 넋원,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는것이라고 하시며 이 땅우에 인민사랑의 화폭을 찬란히 수놓아오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12월의 피눈물바다에서 누구보다 상실의 아픔이 크시고 중대사들이 많고많으신 우리 원수님이시건만 그이의 마음속에서 인민은 한시도 떠나본적이 없었다.

추운 겨울밤 추위속에서 인민들이 편고있다는것을 아시면 우리 장군님께서 가슴아파하신다는것을 명심하고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눈물이 없이는 돌이켜볼수 없는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취해주신 조치들에서 우리 인민은 그이의 숭고한 인민관, 인민사랑에 대하여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정녕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곧 김일성-김정일주의이며 한몸이 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여 후대들이 걸어갈 길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는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된 첫해의 어느 봄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에게 하신 말씀이 뜨겁게 울려온다.

나는 철저히 광범한 인민대중,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시고 아껴주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합니다.

정녕 우리 수령님들께서 자신처럼 믿으시고 품들어 키우시였으며 하늘처럼 내세우신 인민, 위대한 우리 인민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넓고 뜨거운 인정의 바다에 안겨살면서 원수님의 정치야말로 곧 인민에 대한 따뜻한 정이고 불같은 사랑임을 폐부로 절감한 우리 인민이다.

진정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하시고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살며 투쟁하는것은 얼마나 크나큰 영광이며 행복인가.

인민은 우리 당 만세, 우리 령도자 만세를 부르는 위대한 혼연일체!

이 위대한 힘은 누구도 깨뜨릴수 없으며 그 힘이 못해낼 일이란 세상에 없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겯고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힘은 멈지 않아 이 땅우에 강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리라.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영원토록 길이 빛내이리라.

본사기자

영원히 우리 당을 따라 운명을 함께 할 신념의 붓대, 혁명의 필봉

조선작가동맹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맑고 푸른 10월의 하늘가에 조선로동당기가 펄펄 휘날린다.

이 세상 가장 존엄높고 긍지로운 우리 당기폭과 더불어 당과 언제나 생사운명을 함께 해온 성스러운 우리 붓대의 70년의 력사가 눈부시게 빛을 뿌리고있다.

마치와 낫과 함께 붓대를 아로새긴 붉은 당기폭을 우러르며 장장 70년의 력사를 크나큰 긍지와 환희속에 돌이켜보는 조선작가동맹안의 전체 작가들의 심장마다에 더욱 더 굳세여지는 신념의 맹세가 있다.

영원히 당과 함께!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성스러운 당기아래서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작가들이 복받은 삶을 누려왔던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작가는 당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이며 당은 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이다.》

당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작가들이 있다. 인류력사를 더듬어보면 문학이라는 정신문명과 더불어 작가라는 직업이 생겨난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그 언제, 그 어느 나라에서 작가들의 지위와 역할이 이처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난적 있었던가.

조선작가동맹의 70년력사는 곧 수령의 령도밑에 당의 위업을 옹위해온 붓대의 력사이며 조선작가동맹이 걸어온 로정은 곧 시대의 선도자로, 우리 인민의 장엄한 투쟁의 증견자, 기록자로 빛나는 성스러운 자욱이다.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해방직후 그처럼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몸소 작가들을 만나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음성이.

전국사업에서 로동계급과 근로농민, 문화인은 세개의 큰 기둥이라고, 특히 작가들은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 투쟁에서 선전교양자적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하는 시대 작가의 위치와 임무를 환히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

사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적지 않은 작가들은 전국열의에 넘쳐있었지만 일제식민통치의 후과로 하여 예술지상주의와 복고주의적인 창작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함남예술동맹》이니 《정남지구예술련맹》이니 하는 각이한 명칭의 문학예술단체들도 출현하였지만 그에 대한 통일적지도도 보장되지 못하고있었다. 그런데다가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제가끔 미제와 국내반동들의 반혁명적이며 분렬주의적인 책동에 맞장구를 치면서 우리 문학과 예술을 자기들의 더러운 종파적목적에 리용하려고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였다.

일찌기 혁명투쟁에서 문학예술작품이 노는 커다란 역할을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문학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천리혜안의 예지로 새 조선의 문학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일일이 밝혀주시였다.

작가들을 긴국의 힘있는 력량으로 묶어세울 사회단체결성을 발기하시고 그 준비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35(1946)년 10월 13일 조선작가동맹 전신인 북조선문학동맹(당시)이 조직되였다. 하여 새 조선의 작가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유일적인 조직에 튼튼히 결속되여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혁명적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보람찬 삶과 투쟁의 길에 자기의 재능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가게 되였다.

해방후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문단을 하나의 꽃동산에 비유하시면서 한떨기의 꽃을 가지고 꽃동산을 장식할수 없듯이 한두 작가의 힘으로 우리의 문학예술을 발전시킬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라고 교시하시였다.

한떨기의 꽃으로는 백화만발한 꽃동산을 이룰수 없다는 그 진리와 사상으로 우리 수령님 작가들모두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배려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가.

자신께서는 잡곡밥을 드시면서도 작가들에게는 좋은 김과 흰쌀을 마련해주신 이야기, 작가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작품의 소재도 주시고 총자도 토론해주시던 잊을수 없는 그 밤의 사연들은 우리 문학사에 전설처럼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이 있었기에 새 조선의 작가들은 수령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장편서사시 《백두산》,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비롯한 수령형상작품들을 창작할수 있었다.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보위의 노래》, 《결전의 길로》, 《샘물터에서》 등 싸우는 군대와 인민을 조국수호의 결사전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시가요들이 창작되고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에는 장편소설 《용광로는 숨쉰다》, 《서개울의 새봄》, 《시대의 탄생》과 같이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이 수많이 태여나 이 땅우에 주체문학의 대화원을 펼칠수 있은것도 우리 작가들의 운명개척과 참다운 민족문화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의 길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문학예술의 위대한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를 받으며 우리 작가들은 대를 이어 크나큰 행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였다.

세상에는 제노라고 하는 정치가들이 많지만 우리 장군님처럼 혁명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문학을 중시하시고 문학예술화원의 대전성기를 펼친 령도자를 인류는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학창시절에 《조국의 품》, 《축복의 노래》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수많이 창작하신 걸출한 문필대가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혁명적문학예술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수령형상창조!

이것은 참으로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발전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지난 시기에는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이 로동계급의 사상과 계급의식, 조직적단결에 대해서만 그려야 한다고 강조해왔었다. 때문에 정권을 잡은 어느 로동계급의 당도 사상의 일색화의 견지에서 수령형상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프로레타리아문학의 력사가 오래지만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의 이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조차 되지 못했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문학사상 처음으로 수령형상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의 시원을 열어주시였으며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의 창시, 문학의 모든 형태, 모든 종류에 대한 정력적인 지도로 우리 주체문학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하고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총서 《불멸의 력사》가 탄생되여 수령형상문학의 빛나는 장이 펼쳐졌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작하신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나 소설 등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로 옮기는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가극혁명, 연극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종자론의 창시와 주체문학의 백과전서적인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의 발표는 우리 작가들에게 창작활동에서 영원히 높이 들고나아갈 만능의 보검을 안겨준 력사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작가는 철학가가 되여야 하고 생활의 정력적인 탐구자가 되여야 하며 예술언어의 능수가 되여야 한다. 창작활동은 직업이 아니라 혁명사업이며 개인의 명예나 리익을 위한것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되여야 한다, 작가는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가라고 하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우리 작가들은 붓대를 혁명의 무기로 틀어진 혁명가로, 투사로 성장하였다.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세력들과 치렬한 대결전을 벌려야 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총대와 함께 붓대를 중시하시며 이 땅우에 진실같은 사랑과 믿음의 서사시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눈물겨운 선군의 그 길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도 가슴뜨겁게 추억하고있다.

선군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어느날 깊은 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선시찰의 그 바쁘신 속에서 또다시 작가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창작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위대한 장군님께서 떠나셔야 할 때가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작가들을 다정하게 바라보시더니 나직한 음성으로 이제는 그만 헤여지자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헤여지기 못내 아쉬우신듯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노래의 한구절을 외우시며 동무들은 평양으로, 나는 전선으로라고 하시였다.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그 말씀에 작가들은 더는 참지 못하고 《장군님!》 하며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작가들과 함께 계시며 뜻도 슬픔도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품어주고 내세워주신 우리 장군님.

작가들을 나의 친구, 나라의 보배, 당의 친근한 길동무라고 불러주시며 좋은 글을 써내였을 때에는 파분한 치하와 영예도 안겨주시고 밤을 새우며 글을 쓸 작가들을 생각하시며 희귀한 물고기와 첫물과일도 선참으로 보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주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건강에 대한 주의도 주시고 생활에 대한 조언도 주신 친어버이 그 사랑을 천만년 세월이 흐른들 어찌 잊을수 있으랴.

머리희 로작가의 머나먼 인생행로에도, 새 세대 작가의 빛나는 성공에도, 한 녀류작가의 행복넘친 삶속에도 우리 장군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장군님과 우리 작가들이 맺은 혈연의 정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시인들의 창작실에 가도 우리 장군님께서 창작활동에 리용하라고 보내주신 귀중한 음향설비들을 볼수 있고 한 소설가의 집에 가도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은정어린 선물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작가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우리 당과 사회주의제도를 심장으로 노래하는 작가들에게 새 집을 우선적으로 주자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대적인 살림집과 텔레비죤을 비롯한 가정용품들도 안겨주시였다.

선군시대에 재사들이 많이 나오는것은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시며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우리 장군님의 품속에서 얼마나 많은 작가들이 김일성훈장수훈자로, 김일성상계관인으로 값높은 삶을 빛내였던가.

하늘같은 그 사랑, 그 믿음에 기어이 보답할 일념에 넘친 우리 작가들의 불같은 충정심이 있었기에 우리 문학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나날에도 소설, 시, 희곡, 아동문학, 평론 등 모든 분야에서 류례없는 혁신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우리 시가문학은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 정서를 반영한 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가사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2월은 봄입니다》, 《대홍단삼천리》 등 수많은 시대의 명작들로 선군혁명문학의 화원을 빛나게 장식할수 있었다.

작가동맹중앙위원회는 명가사창작의 원천지라고 하시며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수많은 가사들을 친히 지도해주시여 우리 가사가 시대를 추동하고 시대의 숨결이 뜨겁게 맥박치는 명가사들로,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힘있는 무기가 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분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작가동맹인의 전체 작가들은 장, 중편소설을 비롯한 큰 형식의 문학작품 100편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렸다.

하여 1978년부터 5년을 기간으로 하여 장, 중편소설을 비롯한 큰 형식의 문학작품 100편창작전투가 7차에 걸쳐 진행되였으며 그 나날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여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오늘 우리의 문학은 또 한분의 걸출한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손길아래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고 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장엄한 진군을 전두에서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를 몸소 마련해주시고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며 주체적문학예술건설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원칙을 현명하게 밝혀주시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과 전선지대의 무봉도천인 고산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하여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환희롭게 솟아나고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지는 전구들을 찾으실 때마다 시인들이 여기에 와보면 좋은 작품을 쓸수 있다고 하시면서 창작의 비옥한 토양인 현실에로 불러도 주시고 선군령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작가들이 창작한 시와 가사들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밑줄을 그어가시며 종자로부터 문장표현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수령님들의 붓대사랑을 그대로 이으시여 60여년전에 희생된 한 종군작가의 남모르는 위훈과 공로를 값높이 평가하시여 공민의 최고영예인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해주시고 그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안치하도록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신 하늘같은 그 사랑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는것인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우리 작가들은 날마다 우리 원수님을 그리워하는 우리 인민의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가사 《불타는 소원》, 《운명도 미래도 맡긴분》, 《운명의 손길》을 비롯한 수많은 시가작품들과 온 나라 천만군민을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에로 고무추동하는 여러 형태의 문학작품들을 훌륭히 창작완성할수 있었다.

오늘 조선작가동맹은 리기영, 천세봉, 백인준, 석윤기, 오영재, 차영도를 비롯하여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 김일성상, 공화국영웅, 로력영웅, 조국통일상, 인민상을 수여받은 세계적인 대문호, 우리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관록있는 작가들을 수많이 배출하였으며 당의 위업을 사상과 신념의 붓대로 받들어나가는 충정의 대오로 자라났다.

성스런 70년의 력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조선작가동맹안의 전체 작가들의 심장속에 굳게 간직된 절대불변의 신념, 그것은 하늘땅이 열백번 뒤집히고 세월이 천만년 흘러도 혁명의 총대의 사명이 영원히 변할수 없듯이 우리 당만을 따라 빛발치는 혁명의 필봉, 신념의 붓대의 사명도 영원하다는것이다.

그렇다. 계급적자각, 혁명적각오가 없이 맹목적으로 잡은 총은 사실상 막대기만도 못한것처럼 우리에게는 사상과 신념을 떠난 붓대란 있을수 없다.

우리의 붓대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안겨주신 심장이 있고 신념이 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따사로운 사랑의 빛발속에서 값높은 삶을 누려온 우리의 작가들은 자신들의 창작적재능과 열정, 온넋과 심장을 짱그리 불태우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전세대 작가들처럼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당의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사상전선의 제일기수, 제일나팔수로 당과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성민
정영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이다》발표 50돐기념

중앙의학과학토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이다》 발표 50돐기념 중앙의학과학토론회가 12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관계부문, 평양시내 보건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김형훈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시기의 요구에 맞게 보건사업에서 사회주의의학의 원리와 방법을 구현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현실적가능성을 깊이 헤아려보시고 주체55(1966)년 10월 20일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이다》를 발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예방의학에 기본을 두고 인민보건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을 사회주의보건사업발전의 기본방향, 총적목표로 제시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예방의학의 본질과 요구, 그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은 사회주의의학, 예방의학에 관한 리론실천적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며 인민보건사업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 된다고 언급하였다.

모든 보건일군들이 로작의 사상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 예방의학발전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받들고 현대의학발전추세에 맞게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며 의학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이룩된 연구성과와 경험들을 반영한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위생방역기관의 정규화, 규범화를 위한 기초연구》(보건성 보건경영학연구소 실장 한석영), 《A형간염비루스근원지(물)오염도평가에 대한 연구》(의학과학원 의학생물학연구소 연구사 리광진) 등의 론문들은 보건사업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고 질병예방사업을 개선해나가는데서 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론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였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마련해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가다듬었다.

조선작가동맹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작가동맹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12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였다.

안동춘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작가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대성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총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들이 창조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작가동맹창립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문학예술의 근본사명은 전체 인민에게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심어주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주체혁명위업을 추동해나가는것입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의 초행길을 헤쳐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문학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주체35(1946)년 10월 13일 조선작가동맹을 창립하여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령도의 첫 시기부터 당사상사업에서 문학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작가동맹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며 주체문학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나가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문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앞길을 밝혀주고계신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조선작가동맹이 지난 70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랑찬 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작가동맹 작가들과 일군들이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력사와 숭고한 위인적풍모를 대서사시적화폭으로 깊이있게 형상한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내놓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전사로 키우는데 이바지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작가들은 수많은 명작들을 창작하여 주체문학의 보물고를 빛내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사회주의수호전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고 말하였다.

주체혁명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는 장엄한 투쟁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작가들이 명작창작으로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작가들과 일군들이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며 주체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천출위인들의 주체적문학예술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만리마시대의 작가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을 비롯한 대고조전역들에 달려나가 참신하고 전위적인 창조기풍으로 군대와 인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주며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붓대로 충직하게 받들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우리 당에 드리는 충정의 송가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성황리에 진행

뜻깊은 10월의 조국강산에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가는 위대한 우리 당에 대한 충정의 송가가 끝없이 울려퍼지는 속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1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이 11일과 12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당간부양성기관, 평양시안의 령도업적단위, 대학, 예술단체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 창작가, 예술인, 종업원,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장소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올해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창조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애국가로 시작된 무대에는 서곡 혼성합창 《번영하여라 로동당시대》, 관현악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기악과 노래련곡 《영광드립니다 조선로동당이여》, 남성독창 《당이여 나의 어머니시여》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70여성상의 행로우에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기며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여온 조선로동당,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존재방식으로, 당건설과 당활동의 일관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어머니당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관람자들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았다.

이 땅우에 세기적변혁을 이룩하고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안아온 우리 당에 대한 칭송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는 가운데 관현악과 남성합창 《충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 무반주합창 《당중앙의 불빛》, 바이올린제주 《사회주의는 우리거야》, 관현악경주곡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등의 종목들이 무대에 련이어 펼쳐졌다.

장내에는 력사의 모진 광풍에도 끄떡없이 혁명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쥐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차게 이끌어온 조선로동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신뢰의 정이 굽이쳤다.

백전백승의 우리 당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다그쳐나갈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를 형상한 김정일상계관작품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남성독창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있는가》, 남성합창 《우리는 만리마기수》 등의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일편단심 당을 받들어 혁명의 천만리길,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억세게 걸어갈 천만의 대오가 있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당의 성스러운 위업은 반드시 완성될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준 공연은 종곡 혼성합창 《전진하는 사회주의》로 끝났다.

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철리를 관람자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었다.

방사포의 일제사격과도 같은 장중한 울림으로 우리 인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준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조선중앙통신】

당중앙결사옹위의 전초선을 종횡무진하는 첨단돌파전의 기수

아크릴산합성공정의 자동화체계를 우리 식으로 확립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린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 실장 정일철동무에 대한 이야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태어난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우리 나라의 위력한 과학기술인재양성기지, 과학기술혁신골간들을 키워내는 원종장이다.

지난 세기에 이어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오늘의 만리마시대에 이르는 근 70년세월 우리 당의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여온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최고전당에서는 뜻깊은 올해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사변으로 되는 아크릴계칠감생산의 성공을 안아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훌륭한 과학기술인재집단을 배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가는 곳마다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소중한 부름—김책공업종합대학 《홍길동》

한생을 과학에 뜻을 둔 과학자라면 세상을 놀래우는 연구성과나 새로운 기술개발의 주인공이 되고 거대한 발명창조의 선구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것으로 하여 과학자에게 있어서 어떤 연구과제를 선택하는가 하는것은 과학기술상의 단순한 문제이기 전에 인생의 선택과도 같은 심중한 문제이기도 하다.

온 나라가 력사적인 당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던 지난해 6월 중순경이였다.

사리원대성타올공장의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있던 정일철동무는 새로운 과제를 받게 되였다. 폭발위험이 큰 화학공정에 대한 자동화방안을 시급히 연구하는것이였다. 시간이 촉박한 때였으나 그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연구과제를 맡아안았다. 16년전 새로 조직된 자동화체계연구실의 실장으로 임명되여 일해온 기간 각이한 분야의 30여개 대상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연구과제를 놓고 한번도 주저한적 없는 그였다. 정양어린이식료품공장 애기젖가루생산공정시운전, 대동강맥주공장 설비조립과 자동화체계 및 생산지휘체계확립, 함흥목제품공장 목재건조공정의 자동화, 과일말린편생산공정의 자동화, 대동강돼지공장 통합자동화체계확립…

이렇게 전국각지를 동분서주하면서 연구실에서는 폭발위험이 있는 중요대상들도 2개나 단번성공으로 해제했던것이다.

다음날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한 책임일군과 함께 정일철동무가 내려간 곳은 순천화학련합기업소 농약공장이였다. 그는 이곳에서 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자체로 일떠세웠으나 폭발위험이 큰것으로 하여 생산기술도입과 설비제작, 운영이 극히 어렵기때문에 세계적으로 불과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는 아크릴산합성공정의 자동화설계를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현장에 내려와있던 화학공업성의 한 일군은 프로필렌과 공기, 증기와 같은 원료기체의 혼합—산화공정에서 혼합비률이 정확히 맞지 않거나 산화반응기의 압력, 온도가 한계를 넘는 경우에 일어나는 폭발의 참혹한 파괴상에 대하여서도 놓치지 않고 말해주었다.

정일철동무는 이 대상이 안고있는 심중한 과학기술적문제점들을 포착하였다. 자동화분야의 관록있는 전문가로서의 그의 안목과 육감은 정확하였다.

그럴수록 이 생소한 첨단기술에 도전하고싶은 과학적야심이 그의 가슴속에서 끓틀거렸다. 하지만 많은 일감을 안고있는 당시 연구실의 형편에서 결심은 선뜻 서지 않았다.

(방안연구만 잘해서 넘겨주어도 큰것인데 현장도입까지 통채로 맡겠다는건 지나친 욕망이 아닐가?)

정일철동무는 생각이 많았다. 자정이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모대기던 어느날밤 그의 귀전에 불현듯 김책공업종합대학 《홍길동》이 어디 있소라는 우렁우렁한 음성이 들려왔다. 가슴속에는 못 잊을 나날이 어제런듯 파도쳐왔다.

(아, 장군님!)

5년전 불과 석탈사이에 파일말린편공장에 이어 자강도의 어느 한 공장에서 두번째로 만나뵈왔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눈앞에 어려왔다. 어제는 평양에서, 오늘은 조국의 북변땅에서 또다시 만나신 과학자가 그리도 대견하시여 동무는 현대판《홍길동》이라고 하시던 다정한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하고 일군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자리에서도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홍길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못내 아쉬워하시였다는 말씀을 전할수밖에 없는 그리움에 흘리고흘린 눈물이 그 시각 그의 온 얼굴을 적시고있었다.

정 일 철 동 무 (오른쪽에서 세번째)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 대동강돼지공장을 찾으신 그날에도 세계적수준의 통합자동화체계를 구축한데 대한 그의 해설을 들어주시며 높이 평가해주신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공장을 떠나시는 시각에는 사랑하는 과학자를 한번 더 보고싶으시여 실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또다시 하신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억대우같은 사나이의 눈물을 숨기지 않았던 정일철동무였다.

전설속의 《홍길동》처럼 강성국가건설의 각이한 전구들에서 련속 첨단을 돌파하라는 믿음직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기신 소중한 부름을 가슴에 간직하고 연구실의 과학자들과 함께 각 도의 10여개 비닐공장들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길이 관심하시는 많은 대상들의 현대화를 위해 전국각지를 종횡무진해온 나날들도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정일철동무는 소스라치듯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가? 우리가 맡아 키워야 해내야 한다!)

방안연구를 심화시켜나가는 과정은 그에게 있어서 우리 식의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확립함에 대하여 몸소 밝혀주시고 하루빨리 완성되기를 크게 기대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 자신을 끊임없이 세워보는 나날이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기다리신다!)

정일철동무는 드디여 아크릴산합성공정의 자동화체계설계는 물론 도입까지 통채로 맡아 해제할 결단을 내리였다. 그는 강정호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과 함께 지식과 경험을 깡그리 바쳐가며 폭발방지를 위한 방도가 명백한 합리적인 방안을 세워나갔다. 이것은 제노라고 하는 몇몇 나라의 기술독점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첨단돌파전이기 전에 당과 수령이 바라는 문제를 기어이 풀기 위한 당중앙결사옹위전이라는 숭고한 자각이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었다. 당의 뜻대로 국산화비중을 높이고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도를 찾아 최소한의 자금으로 최대한의 안전성과 믿음성을 담보하는 아크릴산합성공정의 자동화체계를 우리 식으로 확립할것을 목표로 한 이들의 방안은 마침내 지난해 7월 9일에 진행된 국가적인 심의에서 모두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속에 자동화체계연구실은 아크릴산합성공정의 자동화체계를 당창건 70돐까지 구축할데 대한 연구과제를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였다.

당과 수령이 바라는것이라면 주저없이 받아나서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고있는 정일철동무는 연구실의 새 세대 과학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랐다. 하기에 그에게는 어떤 연구과제도 맡아 해제낼수 있는 과학자들의 자질도 중요하였지만 그들의 생활상문제는 더우기 놓칠수 없는 중대사였다. 안해와 함께 때없이 걸군 하던 인적드문 밤길도 단순히 한 청년과학자의 혼사문제나 과학자사위를 선택하기 저어하는 한 가정의 골머리를 해결하려는 생각에서가 아니였고 엄마를 잃은 과학자의 어린 딸을 위하는 세속적인 인정때문만이 아니였다. 당과 수령이 부를 때 모두가 주저없이 함께 달려나가는 충정의 연구집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고 바로 이런 집단을 자기의 두손으로 꾸려나가야 한다는 자각에서였다. 먼곳에 있는 부모를 대신하여 청년과학자의 약혼식이며 결혼식준비까지 성의껏 해주고 새 가정을 따뜻이 축복해준 그 마음도 우리 당의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누구나 말로써가 아니라 진심으로 받들어나가자는 말없는 호소였고 과학기술로 당을 받드는 길에서 끝까지 변치 말자는 뜨거운 당부였다.

누구나 쉽게 들어서기 힘든 과학탐구의 길을 선택하고 꿋꿋이 이어가는 그사제를 위훈으로 여기시며 아직은 크게 한 일 없는 과학자들을 온 세상이 부럽도록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그날의 새 가정들이 현대적으로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의 새 집들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폈다. 바로 그 30대의 새 집주인들이 아크릴산합성공정의 자동화체계구축에서 큰 몫을 당당히 맡아 수행하였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며 우리 당의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사상에 더욱더 매혹되여 감사의 눈물, 행복의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바로 정일철동무였다.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강국에로 향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력사의 온갖 도전을 맞받아 자력자강의 기치를 그 어느때보다 높이 추켜들었으며 그 길에서 과학기술이 기관차가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과학자들이 맡고있는 크고작은 하나하나의 연구과제들에는 당과 수령, 시대와 혁명의 이 엄숙한 요구가 담겨져있다.

이 땅의 과학자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제기되는 연구과제를 놓고 자기의 명예와 실적부터 생각한적은 없는가. 당과 수령이 부를 때 당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수령이 고대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전초선에서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떳떳이 대답할수 있는가. 설사 그것이 짧은 기간에 무조건 해제껴야 할 연구과제이거나 극악한 환경에서 10년, 20년 아니 한생도 지어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 그런 연구과제라고 해도 우리의 주인공들처럼 주저없이 받아나설수 있는가.

세상을 놀래우는 세계적인 첨단기술의 개발자, 돌파자라는 과학적명예보다 당정책의 제일관철자, 당중앙결사옹위전의 제일기수의 영예를 더 귀중히 여기는 참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당은 과학기술전사라는 성스러운 부름을 안겨준다.

마지막 한걸음—실력이냐, 신념이냐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첫걸음은 떼기가 힘들다는 뜻일것이다. 하지만 그 첫걸음도 마지막 한걸음까지 이어져야 빛이 나며 그래서 최후에 웃는자가 승리자라는 말도 나왔을것이다.

비록 첫걸음은 내디디였지만 첨단기술을 돌파하기 위하여 정일철동무와 과학자들이 걷는 한걸음한걸음은 결코 헐한 길이 아니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당위원회와 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지도방조속에 20대, 30대의 박사원생, 과학자들로 연구력량이 보강되였다.

종전같으면 1년이상 걸려야 할 작업량을 단 석달도 되나마나한 기간에 해제껴야 하는 시간과의 전쟁은 참으로 치렬하였다. 남흥화학설계연구소를 비롯한 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 기술자들과 함께 전반적인 자동화방안을 다시 확정하고 짧은 기간에 자동화총설계를 완성하며 수많은 자동화설비들에 대한 기술합의와 납입, 분산형조종체계설계제작, 설비현장시공…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일인것으로 하여 자료가 빈약한것이 더 큰 문제였다.

정일철동무가 생소한 아크릴산합성공정에 대한 방대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여 자동조종실현을 위한 결정적돌파구인 산화반응기의 폭발구역방정식을 유도하고 모의하여 폭발구역감시조종체계를 설계할 때 리주성, 강정호, 윤성철동무들은 200개가 넘는 자동화수감부와 수행기구가 설치되여있는 아크릴산합성공정의 40여개의 자동조절체계에 대한 분산형조종체계를 구축하고 측정 및 동작시험, 무부하운전시험을 하나하나 진행해나갔다. 리세형, 곽정남동무들을 비롯한 과학자들의 헌신적노력에 의하여 비상정지보호체계도 자기의 모습을 갖추었다. 조철민, 최태룡동무들은 전체 공정에 대한 대면부프로그람을 훌륭히 작성하고 련동시험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갔다. 그야말로 비상한 속도의 림계전이였다. 사람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집단이 정말 실력이 높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실력만으로는 넘을수 없는 마지막고비가 남아있었다.

시운전의 날이 다가올수록 정일철동무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시운전과정에 폭발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는 힘들기때문이였다. 어찌다 잠깐 잠들었다가도 무시무시한 폭발꿈에 소스라쳐 일어나군 하였다.

그 마지막나날을 돌이켜보며 그의 안해인 길정옥녀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껏 그렇게 많은 출장을 다니면서도 힘든 내색없이 늘 자신심에 넘쳐 떠나군 하던 남편이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다 집에 들어온 남편이 그날만은 콤퓨터앞에서 뜬눈으로 꼬박 밤을 밝히더니 혼자말처럼 정말 성공할수 있을가 하고 몇번이나 되뇌이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함께 살면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지난해 9월 25일이였다. 여느날처럼 안해와 인사를 나누고 집문을 나선 정일철동무는 아빠트마당에서 한동안 움직일줄 몰랐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너무도 곰만 같이 주인이 된 해방산기슭 명당자리의 정든 집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불쑥 났다.

(다시 돌아올수 있을가?)

그도 과학자이기 전에 인간이였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안해와 자식들과 함께 오래오래 살고싶고 더 많은 일을 하고싶었다.

하지만 당앞에 결의한 당창건 70돐까지는 앞으로 10여일, 물러설 자리는 더는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마지막 한걸음을 앞두고 무슨 나약한 생각을 하고있는가. 죽으나사나 시운전을 성공시켜야 한다.)

정일철동무는 결연히 순천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며칠동안이나 과학자들과 밤을 밝히며 시운전준비를 끝낸 10월 8일 깊은 밤, 그는 콤퓨터앞에 마주앉았다.

(정말 성공할수 있을가?)

또다시 찾아오는 불안감, 벌써 수십번이나 자신에게 던져보고 또 던지는 물음이였다. 그는 콤퓨터화면에 있는 《폭발자료》라고 씌여진 곳에 마우스를 가져다댔다. 인터네트를 통해 수집한 아크릴산공장들의 폭발과 관련한 사진자료들이였다. 련속 흘러가는 끔찍한 화면과 더불어 그의 머리에는 기술료해를 위하여 어느 한 나라에 갔던 화학공업성의 일군이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크릴산합성공정의 자동화를 우리 기술자들이 자체로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나라 기술자들은 처음부터 아예 도리머리를 흔들었다고 한다. 아크릴산공장을 건설하려면 이 기술을 독점하고있는 나라들에서 설비는 물론이고 수감부, 수행요소 등 자동화설비와 프로그람까지 일식으로 들여다가 세우는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여있다는것이였다. 그렇게 하고도 그 운영과정에 세계적으로 일어난 끔찍한 폭발사고만 해도 열번이 넘는다는것과 투자가 많이 들고 설치와 조립, 시운전에 몇년씩 걸려도 자기들처럼 다른 나라의것을 통채로 사다 쓰는것이 상책이라는것, 그러니 자체로 해보겠다는 꿈은 꾸지도 말라고까지 하였다고 한다.

정일철동무의 가슴속에는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이 불쑥 끓어올랐다. 그때까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그 《폭발자료》를 꾹 덮어버리였다.

(그래 당신들이 못됐다고 우리도 못할줄 아는가. 그것도 몇년이 아니라 단 70일동안에 기적을 창조해낼것이다!)

그날은 오고야말았다.

현장의 분위기는 무척 엄엄하였다. 만약의 경우를 위하여 만전을 기한 소방차들이 달려오고 사람들이 안전거리까지 물러섰다.

림시로 꾸린 조종실에는 과학자들과 몇명의 일군들뿐, 아크릴산합성탑까지는 불과 10여m…

정일철동무는 시동단추를 누르기에 앞서 한사람한사람 뜯어보았다.

리주성, 강정호, 리세형, 조철민, 곽정남, 모두 30대의 쟁쟁한 과학자들이였다. 20대의 애띤 박사원생 최태룡 그리고 지금껏 알게모르게 자기를 떠밀어준 당세포비서(당시) 윤성철동무…

애오라지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릴 하나의 뜻으로 누구도 염두를 내지 못한 첨단돌파의 길을 함께 걸어온 미더운 동지들이였고 그 길에서 지휘관의 강한 요구성도, 아픈 매도 기꺼이 달게 받아온 사랑하는 전우들이였다. 하지만 그 순간에만은 콤퓨터앞에 앉아 마우스를 쥔 손들이 가볍게 떨리고 조종반의 수자들을 주시하는 얼굴들이 굳어져있었다.

정일철동무는 조용히 일어섰다.

《자, 동무들. 때일이면 기다리고기다려온 당창건 70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들의 보고를 기다리고계신다. 온 나라 인민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이제는 마지막 한걸음이 남았다. 여기서 주춤하고 물러선다면 영영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마지막 한걸음을 크게 내짚으면 성공이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시운전을 성공시키고 우리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를 드리자!》

정일철동무의 불같은 신념의 호소에 과학자들은 결사의 각오를 안고 호응해나섰다.

드디여 10월 9일 오후 1시, 정일철동무는 프로그람시동단추를 지그시 눌렀다.

1%, 2%…

부하가 점점 오르기 시작하였다. 이마와 등골로 줄줄 흐르는 땀을 의식하지도 못한채 모두가 현시판에 찍혀지는 풀색의 설정점과 빨간색의 측정점만을 좇아지게 바라보았다. 드디여 폭발방지구역에서 첫 풀색점으로 빨간색의 점이 다가들었다. 이것은 전체 자동화체계가 정확하게 동작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환성이 터져올랐다.

10%, 20%, 50%…

마침내 10월 10일 1시 30분, 산화반응기의 부하는 목적하였던 70%계선에 도달하였다. 이어 새벽 5시까지 16시간동안 진행된 시운전은 그야말로 단번성공이였다.

꿈인가, 생시인가. 꿈 아닌 현실앞에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위대한 어머니의 생일 일흔돐에 첨단기술의 돌파라는 충정의 선물을 올리게 되였다는 긍지, 우리 당의 존엄과 권위를 기어이 지켜냈다는 자부만이 팍 차올랐다.

정일철동무와 과학자들은 멀리 평양의 하늘가를 우러르며 정중히 아뢰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단번성공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첨단기술독점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온 평양이 경축의 분위기에 휩싸여있던 10월명절의 아침 7시, 연구집단을 대표하여 《아크릴산합성공정 시운전성공!…》이라는 충정의 소식을 전화에 담아 대학당조직에 보내는 순간에야 정일철동무는 참고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목숨을 내걸었던 그 마지막 한걸음을 또다시 부하를 100%로 올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줄기차게 이어나간 우리의 주인공들은 9개월만인 지난 7월 27일에는 최대부하에서도 아크릴산합성공정을 안전하게 운전할수 있다는것을 확정하였다.

이것은 높은 실력이 안아온 성공이기 전에 신념의 승리였다. 설사 목숨까지 바친다고 해도 그 마지막 한걸음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우리 당이 펼치는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고 더 높은 미래에로 향하는 첫걸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과학기술전사의 신념으로 이들이 줄기차게 걸어온 첨단돌파의 걸음걸음은 마침내 아크릴산공업이라는 새로운 화학공업부문을 일떠세우는 주추돌이 되고 한소하나화학공업창설의 서막을 올리는 추동력이 되였다.

영광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종합조종실에서 아크릴산합성공정의 자동화체계와 관련한 정일철동무의 해설을 구체적으로 들어주시고 과학자들의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의 세위가 스민 분산형조종체계도 몸소 보아주시며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좋은 일을 하였다고, 정말 큰일을 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이 자랑찬 현실을 안아오시려 자신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다 묻어두시고 사랑하는 전사들의 수고부터 헤아려주시며 아크릴산합성기술을 우리 식으로 개발도입하여 아크릴계칠감생산에서 성공한것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사변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실 때 정일철동무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뢰였다.

(오늘의 이 사변은 조선혁명가들에게 자기 힘을 믿으면 만리도 지척이고 남의 힘을 믿으면 지척도 만리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아오신 승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걷는 탐구의 길에는 우리의 주인공들처럼 죽음까지 각오해야만 맞이할수 있는 그런 성공의 순간은 사실 흔치 않다. 그러나 최악의 조건에서 과학기술기관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사회주의강국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뛴 앞장에서 최대의 속도로 열어나가야 할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전화의 육탄용사들과 같은 그런 신념과 의지, 결사의 각오가 필요하다.

당과 수령,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중차대한 임무를 자각하고 설사 성공에로의 길이 한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야 하는 길이라고 해도 육탄용사처럼 마지막 한걸음까지 서슴없이 내디디는 철석의 신념을 본솔시킬수 있는 과학기술전선의 기수, 전초병만이 자기의 모든 지식과 기술도 총폭발시킬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넘어설수 없는 과학기술의 극한점을 돌파하여 반드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바로 이런 신념을 지닌 수많은 유명무명의 과학자, 기술자들에 의하여 5천년 민족사의 대경사로 되는 우주정복의 길이 개척되고 지구를 통채로 뒤흔드는 핵강국에로의 길이 다계단으로 열리였으며 어제는 CNC기술과 같은 첨단기술들이 련이어 돌파되고 오늘은 아크릴계칠감생산의 성공과 같은 사변이 이룩된것이다.

과학기술로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정책을 절사관철하고 절사옹위하기 위하여 당의 과학기술전사들이 마지막 한걸음까지 억세게 걷는 성스러운 과학탐구의 길과 더불어 우리 공화국의 강국의 령역이 이렇게 넓어지고있다.

* *

우리는 멋들어지게 일떠선 아크릴산합성공정이 한눈에 보이는 종합조종실에서 정일철동무와 만났다.

과학자로서 정말 크게 성공하였다는 우리의 이야기에 그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오면 꼭 말씀올리고싶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뜨거운것을 삼키는 정일철동무의 모습에서 우리는 영광의 그날 그의 가슴속에서 울리던 심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 오늘 원수님을 만나뵙게 되니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장군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현지지도의 길에서 저를 세차례나 만나주시고 현대판《홍길동》이라고 불러주시였습니다.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저희들의 연구사업정형을 료해하시고 이처럼 크나큰 평가를 안겨주시니 어쩌면 우리 장군님과 똑같으실가 하는 생각에 장군님을 다시 만나뵈옵는것만 같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원수님께 큰절을 올리고싶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사무치는 그리움에 그의 눈가에도, 우리의 눈가에도 저도 모르게 뜨거운것이 맺히였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성공한 과학자이고 또 행운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찌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과 정에 떠받들려 우리 과학자들모두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속에 탐구의 길을 걷고있습니다. 한생의 끝까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홍길동》이라는 부름을 잊지 않고 살렸니다.》

그 어떤 학위학직이나 명예보다 크나큰 믿음이 담긴 소중한 부름을 이 세상 가장 값높고 영예로운 칭호로 간직하고 정일철동무는 첨단돌파전의 새로운 전구들을 향하여 또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짚었다.

당이 맡겨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 당정책결사옹위의 전초선에서 련속 첨단을 돌파할 신념과 배짱, 과학적야심도 만만히 수많은 《홍길동》들이 과학기술전선을 종횡무진하고있다.

그 진하고 무수한 탐구의 발자욱들과 더불어 힘차게 마중오는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아름답고 눈부실것인가!

본사기자 려명희

왕재산예술단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공연

총정의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혁명적열정을 안겨주는 왕재산예술단의 공연이 8일부터 12일까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진행되였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등의 로동계급과 일군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개시음악 《카리라 백두산으로》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노래와 무용, 기악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도를 끊임없이 찾고찾으시여 함남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전국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더해주는 녀성독창과 방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녀성중창 《우리의 김정은동지》, 녀성2중창 《인정의 세계》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걸고걸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여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쳐주시고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벅찬 숨결이 맥박치는 경음악 《더 높이 더 빨리》는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로동계급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명명만 내리시면 단숨에 달려나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열적의 의지를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억세게 새겨주는 무용 《명령만 내리시라》와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는 현대무용 《계권을 단숨에》, 민속무용 《야장춤》, 민족무용 《자랑하세 우리 민족옷》 등은 공연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갈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신념을 보여준 총장 《천리라도 만리라도》,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로 끝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 폐막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폐막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의 청년대학생들이 첨단과학기술의 령마루를 점령하기 위한 학습과 과학탐구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는 과정에 이룩한 많은 성과자료들이 출품되였다.

《합리적인 배합비에 의한 연의 직접제련기술》, 《다기능교실지원체계 〈해살1.0〉》을 비롯하여 350여건의 발명 및 쏘프트웨어제품들이 우수하게 평가되였다.

전시회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이 우승하였다.

도별순위에서는 함경북도가 특등, 평양시와 함경남도가 1등을 하였다.

폐막식이 12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였다.

리충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학생청년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폐막사를 하였다.

그는 이번 전시회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학기술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따라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두뇌전, 기술전을 맹렬히 벌려나가고있는 학생청년들의 창조적재능과 지혜를 남김없이 과시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청년대학생들이 20대, 30대에 세계적인 발명가, 박사가 될 야심만만한 포부를 안고 학습과 과학탐구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과학과 기술로 믿음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유능한 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참가자들에게 우승컵과 발명증서, 창의고안증서 등이 수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대가정에 꽃펴나는 우리 인민의 아름답고 행복넘친 생활

온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안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콩우유가루직장에서

온 나라 어머니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있는 공장이 있다.

남을 쳐다보는데 습관된 일부 사람들이 이곳을 돌아보면 수입병이 싹 없어질것이라고 우리 원수님께서 높이 치하해주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이다. 오늘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으로 전변된 이 공장에서 콩우유가루직장은 크고도 중요한 몫을 맡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 직무에 대한 영예감과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나라와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로동에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콩우유가루직장의 남다른 특징을 말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자기 기대, 자기 일터에 대한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뜨거운 애착심일것이다.

원료투입으로부터 생산, 포장, 보관, 운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현대화된 직장을 찾는 사람들은 혼자서 여러 설비들을 능숙하게 척척 다루는 기대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군 한다고 한다.

저 기대공들은 모두 대학졸업생들인가?

근 40년을 공장에서 일해온 오랜 기대공인 운반출하작업반 기대공 김정화동무는 자동화된 설비들을 처음으로 다루던 그날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다.

《자동조종반에 손가락이 한번 가닿기만 해도 여기저기서 설비들이 윙윙 돌아가는데 이전엔 여러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손도 마음도 막 떨렸습니다.》

그것은 당시 직장의 거의 모든 기대공들의 심정이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오래지 않아 누구나 다 자동조종반앞에 자신있게 서게 되였다.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자동화된 설비들을 다룰수 없다는 걱정에 앞서 그들의 가슴속에 먼저 자리잡은것은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생산을 단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이 공장의 생산정상화문제는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도덕의리에 관한 문제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당부였다.

기대공들은 직장일군들과 현장에 나온 현판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적극적인 방조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자기 기대를 파악해나갔다.

과학기술보급실이 총성이기 시작했다. 예전엔 늘 바쁘게 되군 걸을 서두르던 가정주부들이 과학기술강의가 있는 날이면 저저마다 과학기술보급실로 먼저 달려갔다. 강사는 직장장, 부직장장을 비롯한 직장의 실력있는 일군들인데 그들의 강의는 매번 진지하고 특색있는것으로 하여 로동자들에게 늘 기다리는 강의로 되고있다.

품팔고 만든 강의안, 대중의 자그마한 의견까지도 충분히 반영하여 더욱 새로와지는 강의안은 현대적인 새 설비에 맞게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더욱 높여주었으며 이전엔 기대를 세워놓고 수리공들을 찾아다니던 기대공들을 웬만한 수리쯤은 혼자서도 해제끼는 기능공들로 만들었다.

수리공 못지 않게 수리도구들을 갖추고있는 기대공들은 각이한 곳에서 울려나오는 서로 다른 설비들의 동음을 자기 자식들의 목소리처럼 정확히 가려듣고 제때에 고장을 퇴치한다고 한다.

《우리 힘으로 만든 설비는 고장이 나도 걱정없이 우리 손으로 수리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기대에 더욱 애착을 가지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장들인 장길순, 장순화동무들만이 아닌 기대공모두의 심정이기도 하다.

설비현대화에서 국산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당의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된 공장이라고 하시며 우리 원수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신 공장설비들속에는 콩우유가루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제 땀을 들여 자기의 지혜로 만든 설비들도 적지 않다.

그들에게는 한주일에 한번씩 어김없이 진행하는 류다른 일과가 있다. 매주 토요일이면 기대공들은 누구나 다 한주일동안 설비를 다루면서 찾아본 부족점들과 그를 퇴치할수 있는 방도적 문제들을 적어낸다. 그렇게 종합된 매 기대공들의 의견은 직장적인 문제로 되어 즉시 집중적인 설비수리계획에 반영되며 나아가서 설비개조계획으로까지 작성된다. 공장적으로도 소문난 실력가들인 직장장 리영희, 부직장장 박광현동무들이 착상하고 설계하면 수리공인 설영남, 최명일, 최동일동무들은 자체로 도면을 보면서 밤을 새워가며 제품의 질을 최대한 높일수 있게, 기대공들의 마음에 꼭 들게 설비를 개조하거나 새로 만든다.

그렇게 땀흘려 만든 설비가 기대공들의 호평속에 만가동, 만무하로 돌아갈 때면, 그 설비들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가닿을 콩우유가 펑펑 생산될 때면 그들은 자력자강의 힘을 가슴뿌듯이 느끼군 한다.

어제날의 해안포중대장이였던 3작업반 반장 김복순동무는 일터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은 사람은 가정에 유독 자기 혼자뿐이라고, 온 나라가 다 알고 내세워주는데 보답을 못해 안타깝다고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자기 기대만이 아닌 다른 기대를 다루는 법도 직심스럽게 배워가며 다기대공으로 준비해가고있는 이 직장 기대공들의 일솜씨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그들중 많은 사람들이 군사복무시절에 만능병사로 준비하기 위해 땀을 흘리던 제대군인들이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더 많은 어린이식료품생산으로 원쑤들에게 타격을 안겨야 할 첨예한 전선에 서있는 그들이 는동자와 같이 다루는 무기는 기대이다.

직장장 리영희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원쑤들에게 우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어떻게 지키고 사회주의를 어떻게 고수하는가 하는것을 생산정상화의 동음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 우리 원수님의 정과 믿음이 뭇뭇마다 깊이도 스며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순결한 량심과 의리, 애국의 땀을 다 바쳐 일하는 참된 사람들을 마음에 안고 공장을 떠나는 우리의 귀전에는 콩우유가루직장 부문당위원장 홍선옥동무가 하던 말이 정정히 메아리쳐왔다.

《어머니의 젖은 한시절에 끝나지만 우리 당의 젖줄기는 영원합니다!》

본사기자 조 향 선

탄전의 특이한 풍경

인포탄광 소묘작품전시판앞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량만이 없이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갈수 없고 미래를 위하여 한몸 바쳐 투쟁할수 없습니다.》

얼마전 인포탄광을 찾았던 우리의 걸음은 탄광구내에 병풍처럼 늘어선 속보판들앞에서 저도모르게 차츰 더디여졌다.

갱, 직장들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창조되는 위훈의 새 소식들을 소리쳐 자랑하는듯 한 속보판들, 70일전투에 이어 총정의 200일전투에서도 석탄생산을 최고생산년도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는 인포탄광의 약동하는 숨결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기백넘친 글체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의 귀가에 열정적인 목소리들이 울려왔다.

《역시 덩지큰 1갱에서 많은 작품들을 내놓았군.》

《솜씨는 많지 않아도 운반갱 작품들은 얼마나 생동해요.》

《공무직장의 소묘들도 하나같이 내용이 좋구만.》

수십m에 달하는 속보판구획에 자리잡은 소묘작품전시판앞에 둘러선 탄부들이 주고받는 말소리였다.

소묘작품전시판에는 《랑만에 찬 탄부들의 생활》이란 표제아래 수십점의 소묘작품들이 나붙어있었다.

매일 전투계획을 120%이상 넘쳐 수행하는 1갱 전투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는 속보를 내붙이고 메가폰을 든 선동원을 그린 《만리마속도창조에로!》, 그 무릎에 화답하듯 석탄이 가득 담겨진 탄차와 함께 있는 채탄공의 모습을 담은 《단숨에!》, 기관총 련발사격소리와 같은 착암기소리가 금시 들려오는듯 한 막장에서 드세차게 굴진하는 굴진공들을 형상한 《100%는 성차지 않다!》와 《더 많은 탄밭을!》, 꽃목걸이를 건 혁신자전차운전공을 그린 《처녀전차운전공 백금란동무》, 누가 보건말건 지하막장에서 케루보수정비를 다그치는 두 탄부를 그린 《운반이자 석탄생산》, 현장을 성심성의로 지원하는 탄부안해들의 모습을 담은 《명랑한 가족지원대》, 점수를 마친 1갱 축광공의 모습을 형상한 《월간 굴뜰기실적이 130m라!》, 당 제7차대회 보고를 열심히 학습하며 자력자강의 일념으로 가슴뜰이는 탄부들을 형상한 《혁명적학습열풍》…

랑만과 위훈에 찬 자기들의 생활모습을 그대로 담은 소묘작품들을 보고 또 보는 탄부들의 얼굴마다에는 이름 못한 희열과 긍지가 비꼈다.

사실 최고생산년도수준에서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결코 힘한것이 아니였다. 하지만 인포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은 자강력제일주의구호를 추켜들고 총정의 200일전투의 날과 날들을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었다. 그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져있는 소묘작품들앞에서 어떤 탄부들은 김성찬, 안영수, 리택동무들의 소묘작품들이 탄부들의 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하였다고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공무직장에서 출품한 《더 많은 부속품을 석탄생산에》에서 주인공이 카공소대장 김영길동무와 어찌면 신통한가고 감탄하는 탄부들이 많았다. 축광공 조근역동무의 작품 《애국심》앞에서 누구나 창성이깔나무모를 많이 심어 산들을 푸르게 하자고 약속했다.

그러한 심정들에 하나같이 흐르는것은 석탄증산에 바쳐진 자기들의 위훈과 랑심과 열정을 돌이켜보며 석탄산을 더 높이 쌓아갈 각오와 결심이였다.

작품감상과 함께 말없는 속다짐을 하게 하는 소묘작품전시관.

소박하지만 하나하나의 소묘작품들은 탄광의 자랑이였고 총정의 200일전투를 벌려가는 탄부들의 삶과 위훈을 그림으로 전하는 전투속보였다.

피그나 해가 기울었으나 하루일을 마치고 그 소묘작품전시판을 마주하는 탄부들의 수는 줄어들줄 몰랐다.

류다른 정서를 자아내는 탄전의 특이한 풍경이였다.

본사기자 김 치 곤

뜨거운 동지적사랑으로

평안남도의약품관리소 로동자 김춘실동무의 가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나 애로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 어느날이였다. 도의약품관리소로 향하던 김춘실동무는 어느 한 아파트앞에서 자동차에 지함들을 실으며 떠들썩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였다. 지함들에는 《원호물자》라는 글발이 새겨져있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린 그는 그곳으로 다가가 짐실는 일을 도와나섰다.

《우리 아파트에 사는 영예군인부부가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는 원호물자라오. 해마다 이렇게 극성이지.》

그와 지함을 맞들던 나이지숙한 사람이 한쪽에 서있는 영예군인부부에게 눈길을 주며 하는 말이였다.

그럼 부부가 다 영예군인이란 말인가. 그런 몸으로 어떻게 이런 걸음…

앞가슴에 영예군인메달을 단 부부의 모습이 더없이 돋보였다. 군복은 벗었어도 병사시절의 그 모습으로 조국을 위한 복무의 길을 묵묵히 걷고있는 그들이 마치 전통생들처럼 여겨지는것은 무엇때문이였던가.

그날 저녁 안해를 통해 영예군인부부에 대하여 알게 된 김춘실동무의 남편 김상칠동무도 감동이 컸다.

《어쩐지 그들이 남처럼 생각되지 않는구만. 우리가 그들을 잘 도와줍시다.》

김춘실동무의 가정과 영예군인들인 방두산, 신복실부부와의 깊은 인연은 이렇게 맺어졌다.

김춘실동무는 영예군인부부의 건강과 생활을 극진히 돌봐주었다. 철이 바뀌는 때이면 어머가지 보약들을 마련해주었고 신복실동무가 부엌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간들도 그뜬히 갖추어주었다. 김상칠동무도 영예군인부부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가정용품들을 구해왔다. 이렇게 날과 달이 흐르는 속에 그들은 친형제처럼 되여버렸다.

언제인가 신복실동무가 도인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때였다. 신복실동무의 침상곁에서 밤을 꼬박 지새우다싶이 한 김춘실동무는 집으로 돌아와 별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찾아갔다. 입원실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출장지에 있을줄로 알았던 남편이 신복실동무의 침상곁에 앉아있었던것이다.

《아직 깨여나지 않았소. 의사들의 말이 위험한 고비는 넘겼으니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더군. 당신이 온밤 수고가 많았겠소.》

총혈되여있는 남편의 눈을 보고 밤새 달려왔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었다.

《복실이의 몸보신에 좋을가 해서 뭘 좀 가져왔는데 당신이 곁에서 잘 돌봐주오. 난 빨리 돌아가야 하오.》

김상칠동무는 다시 길을 떠났다. 몸이 완쾌된 다음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방두산, 신복실동무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이런 뜨거운 동지적사랑이 늘 곁에 있었기에 자기들의 위훈도, 복받은 삶도 더욱 빛나는것임을 그들은 다시금 절감하였다.

군사복무를 하고있는 김춘실동무의 맏아들 김화성동무도 제지때마다 영예군인부부의 안부를 물어왔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둘째아들 김유성동무도 방학때면 방두산동무의 집에 먼저 들려보군 하였다.

때없이 자주 찾아오는 그들에게 자기들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영예군인부부에게 김춘실동무는 웃으며 말하군 했다.

《영예군인들이 건강하여 락천적으로 생활한다는것을 아시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뻐하셔. 이 누이는 언제나 그 한마음뿐이야.》

김춘실동무의 가슴속에는 이런 고결한 지향이 간직되여있다. 하기에 영예군인부부를 위해 바치는 그의 사심없고 뜨거운 진정앞에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하는것이다.

본사기자 조 경 철

◇ 대가정의 륜리, 미덕의 향기 ◇

아름다운 우리의 생활

정양시제2예방원 의사리명기동무가 정천구역 안산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정철호동무와 남다른 인연을 맺게 된것은 9년전이였다. 그때 영예군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있었다.

병치료는 약절반, 마음절반이라며 신심도 북돋아주고 입맛을 잃을세라 영양식품들을 정성껏 만들어 안겨주기도 하는 리명기동무를 비롯한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의 지성에 의해 영예군인환자의 병은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리명기동무는 한생을 영예군인의 담당의사로 살 결심을 굳게 다졌다.

영예군인이 퇴원한 후에도 리명기동무는 갖가지 보약들을 가지고 찾아가 건강상태도 주체적으로 알아보고 그의 아들이 군대에 나갈 때에는 친혈육의 심정으로 각근히 돌봐주었다.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이런 평범한 인간들속에, 례사로운 생활속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이 있고 미덕의 향기 넘쳐나는 아름다운 우리의 생활이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사회주의대가정이 제일

태천군 운룡리에 사는 특류영예군인 김혁철동무에게는 친혈육들이 나날이 늘어난다. 자식을 돌보는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그의 건강과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는 고마운 사람들속에는 군당일군들도 있다.

김혁철동무가 만사람의 축복속에 새 가정을 이루게 되였을 때 떠나간 그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누구보다 진심으로 마음기울인것은 군당일군들이였다. 결혼상도 차려주고 세살림에 필요한 갖가지 가정용품들도 성의껏 마련해주며 앞을세라, 얼굴에 한점 그늘이 비낄세라 진정을 다해 보살펴주는 뜨거운 정이 있어 그는 오늘도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고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지성을 다하는 고마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는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의 참모습을 가슴뜨겁게 느끼군 한다. 나날이 감사의 정이 커갈수록 그의 가슴속에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일심단결의 대가정을 마련해주시고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에 대를 이어 보답할 충정의 맹세가 더욱 세차게 끓어번진다.

신 철

우리 당을 따라 영원히 충정의 한길만을 갈 결의에 넘쳐있다.
—평양고등교육도서인쇄공장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독자의 편지

나의 생명이고 생활입니다

저는 최전연초소에서 군사임무수행중 뜻하지 않게 전사한 병사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떠나간 자식을 그리워할세라 명절과 기념일 등 때없이 잊지 않고 찾아주는 고마운 사람이 있으니 그는 중앙예술선동사 일군인 리혜숙동무입니다.

올해 뜻깊은 선군절을 하루앞둔 날 저녁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명절을 맞으며 어머니를 찾아온 친딸의 모습그대로였습니다.

희귀한 보약재들과 많은 량의 식료품들… 그 하나하나에 너무도 아름다운 지성이 비끼여있어 저도모르게 눈시울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하루이틀도 아닌 수년세월 그는 이렇게 친자식의 정을 기울이고있습니다.

리혜숙동무는 모란봉구역에 산다는 특류영예군인가정에도 10여년세월 진정을 바치고있습니다. 우리의 온해로운 사회주의제도를 떠나 이런 훌륭한 인간들이 존재할수 있을가 하고 생각할 때마다 조국보위초소에서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아들이 더없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모두가 한가정이 되여 기쁨도 아픔도 함께 나누는 사회주의조국은 나의 생명이고 생활입니다.

만경대구역 당상1동 27인민반 안 춘 옥

조선로동당창건 71돐에 즈음하여

꾸바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조선로동당창건 71돐에 즈음하여 헤쑤스 델 로스 앙헬레스 아이쎄 쏘뜰롱고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2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와 류명선 부부장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꾸바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헤쑤스 델 로스 앙헬레스 아이쎄 쏘뜰롱고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꾸바공산당의 이름으로 조선로동당창건 71돐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우리 당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사회주의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을 가장 존중하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주는 위대한 어머니당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집중하여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선대수령들의 뜻을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리수용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꾸바인민이 해마다 우리 인민과 함께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을 뜻깊게 경축하는것은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두터운 형제적우의를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꾸바혁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마련하여주신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계신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꾸바당과 정부, 인민이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꾸바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수리아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조선로동당창건 71돐에 즈음하여 땀맘 쌀레이만 주조 수리아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2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용호외무상,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리창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연회에서는 땀맘 쌀레이만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우리 당의 장구한 력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조선로동당은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념원을 구현하여 만리마의 속도로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웅대한 강령을 제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하페즈 알 아싸드각하와 김일성주석께서는 쌍무친선관계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고 하면서 그는 바샤르 알 아싸드대통령각하와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두 나라 당과 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무장한 제재와 봉쇄책동에 맞서 싸우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리용호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당의 통일단결과 대중적지반을 굳게 다지고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강력한 정치적담보를 마련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바샤르 알 아싸드대통령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두 나라 선대수령들의 고귀한 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려는것은 공화국정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수리아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낼것이라고 말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바샤르 알 아싸드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인민과 수리아인민사이의 영원한 친선단결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조로외교관계설정 68돐에 즈음하여

로씨야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8돐에 즈음하여 알레싼드르 마레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12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신홍철 외무성 부상, 오룡철 대외경제성 부상,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서호원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대통령의 건강을 축원하여, 전통적인 조로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한 영예군인의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우리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침상에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특류영예군인 신동호동무가 씩씩한 모습으로 일어나 우리를 반겨맞아주었던것이다. 의학계의 진단으로는 겨우 한두해를 넘기기 어렵다던 그였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영예군인의 어머니인 김영춘녀성의 눈굽은 젖어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그의 추억은 평안북도당위원회 일군들의 지성어린 마음에 받들려 신의주시 백운동의 아늑한 살림집에 입사한 몇해전 봄날로부터 시작되였다.

《입사한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 저의 집으로 묻는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 한집안식솔처럼 지내자며 침상에 누워있는 아들에의 머리맡에 있는 갖가지 약들도 유심히 살펴보고 가마뚜껑도 열어보던 그들은 다음날 아침 또다시 저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귀한 약재들이며 품들여 마련한 영양식품들을 안겨주면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심장이 뛰는 한 신심을 잃어서는 안되오. 동호동무는 꼭 일어서게 될거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이름도 주소도 알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면 알게 될것이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총총히 사라진 겄었으니까요. 퍽 후날에야 저희들은 그들이 우리와 한동네서 살고있는 리창렬, 강옥화부부라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10여년전에 벌써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은 리창렬동무는 물론 그의 안해도 이미 오랜 세월을 영예군인전쟁로병부부의 친아들, 며느리가 되여 뜨거운 지성을 다한 쉼지 않은 미력의 주인공들이였습니다.

한해전 어느날 이른아침 그들부부와 자식들인 정아와 정림이가 불쑥 저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갖가지 음식들을 성의껏 차려놓고 우리 동호에게 생일기념품을 안겨줄 때 저는 그만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심한 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있던 강옥화동무가 우리 아들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하여 우정 퇴원을 앞당겼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였을 때 어머니인 저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좋다는 보약은 어떻게 해서나 구해안고 오며 변함없이, 사심없이 위해주는 그 진정속에 저의 아들의 온몸에는 차츰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실명되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들부부는 몸에 꼭 맞게 지은 양복과 함께 새 신발을 안고왔습니다. 어서 빨리 대지를 활보하라는 그들의 웅심깊은 진정을 안고 치료전투를 벌려 저의 아들은 마침내 다시는 밟을수 없다고 생각했던 대지에 제힘으로 발자욱을 찍었습니다. 그 소생의 기적을 위하여 귀중한 활력소가 되여준 리창렬, 강옥화부부와 같이 잊지 못할 사람들, 고마운 무상치료제와 따뜻한 정 넘치는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어머니당에 과연 무슨 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릴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국앞에 위기가 닥쳐왔던 지난해 8월 영예군인 신동호동무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며 목메여 아뢰였다고 한다.

(어제날 병사는 복대를 탄원합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강옥화동무를 만났을 때 그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을 했을뿐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아버지도 영예군인전쟁로병이였다고, 어려서부터 늘 보아온것은 원군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였다며 이렇게 범상하게 말했다.

《우린 모두 한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사기자

박근혜역도의 《도발》타령에 깔린 흉심을 발가본다

박근혜역도와 그 패당이 매일같이 《북도발》타령을 귀따갑게 불어대며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있다.

우리가 자위적조치를 취할 때마다 《심각한 도발》이니, 《중대한 위협》이니 하며 숨넘어가는 소리를 해대는가 하면 지어는 아무 일이 없을 때조차 《북이 도발을 준비한다.》, 《도발이 예상된다.》며 남조선사회에 극도의 불안감을 고취하고있다.

눈만 짜개지고 입뚜껑만 열리면 《도발》이고 청와대안에서도, 군사분계선에 뛰여나와서도 《도발》이며 미국에 가서도, 유럽에 가서도 《도발》, 《도발》이다.

이래도 《도발》, 저래도 《도발》이다.

그 닭대가리의 빈곤한 언어창고에는 《도발》, 《위협》이라는 낱말밖에 없는것 같고 그 나발을 불어대는것밖에는 할 일도 없는 모양이다.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라면 침몰하는 경제, 아우성치는 민생을 비롯하여 돌봐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을텐데 만사를 집어팽개치고 하루종일 온몸의 독을 다 뿜아 《도발》나발만을 불어대고있는 박근혜야말로 동족대결을 위해 세상에 삐여져나와 《도발》타령을 전업으로 하여 살아가는 대결광녀임이 틀림없다.

오죽하면 남조선에서 《〈도발〉에 미친 박근혜》, 《〈도발〉을 도발하는 도발녀》, 《〈도발〉소음공해때문에 귀를 열어놓지 못하겠다.》라는 조소와 저주가 울려나오겠는가.

하루한시라도 《도발》이라는 악담을 하지 않으면 목구멍에 가시가 돋는 박근혜의 선창에 따라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새누리당》 대표 등 《녀창》을 섬기는 환관나부랭이들과 보수매문통들이 여름철 논판의 개구리떼처럼 경쟁적으로 《도발》에 대하여 떠들며 집단히스테리광기를 부리고있다.

박근혜패당이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기라도 한것처럼 요란한 언어람발과 죽는 시늉을 통한 《도발》타령으로 사람들의 시청각을 지독하게 자극하고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북도발설》은 저들의 도발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기만극

력사를 돌이켜보고 오늘의 세상을 둘러보면 부정한짓을 행한 악한들치고 천사의 가면을 쓰지 않은자 없고 남에게 해악을 저지른자치고 상대를 겁고들지 않은자 없다.

크게는 히틀러가 제손으로 불을 질러놓고 공산당을 범인으로 몰아 만압한 국회의사당방화사건으로부터 작게는 도적이 도적이야 하며 매를 드는데 이르기까지 죄많은자들이 오히려 제편에서 더 기승을 부리였다.

박근혜의 《도발》타령은 제가 쓰고있는 도발자의 감투를 남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한 서툰 연극이다.

우리가 미국의 핵선제공격아망에 대처하여 핵시험을 해도 《도발》이고 저들의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조선동해의 공해상으로 로케트를 발사해도 《도발》이며 저들의 군사적도발에 응당한 징벌을 가해도 《도발》이고 지어는 우리가 발사한 인공지구위성이 아득한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도발》이라고 우겨대는것이 박근혜패당이다.

그러나 도발자의 딱지는 제가 저지른 죄악에 따라 와붙는것이지 거치장스럽고 수치스럽다고 하여 제손으로 떼버리거나 남에게 붙여놓을수 있는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무려 1,000여차례나 핵시험을 진행하였으며 7,000여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공공연히 떠벌이는 미국상전의 위협공갈은 《정의로운것》이고 동족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 기껏해서 5차례 단행한 핵시험은 《도발》이라는것은 대국역적들만이 내돌수 있는 폐담이다.

그러나 《도발》이라는 낱말의 사용빈도수를 높이고 아츠러운 고성을 질러댄다고 하여 진짜도발자들이 그 시꺼먼 정체를 가리울수 있는것이 아니다.

극도의 광기를 띠고 벌어지는 박근혜패당의 《도발》과 《위협》나발은 북침전쟁도발의 위협지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괴뢰군부깡패들은 미국상전과 함께 우리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 무슨 《3축타격체계》수립계획과 《대량응징보복작전계획》이라는것까지 공개하며 《북수뇌부를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느니, 《평양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느니 하며 핵선제타격에 의한 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하고있다.

이 시각에도 미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를 주축으로 하는 핵항공모함타격전단까지 조선동해와 서해와 남해에 끌어들여 우리 수뇌부와 전략적거점들을 정밀타격하는 련합훈련을 발광적으로 벌려대고있다.

미국의 《싸드》를 한사코 남조선에 끌어들여 핵전쟁의 기록제를 터뜨리려 하는가 하면 미국의 《B-52》와 《B-1B》, 《B-2》핵전략폭격기편대들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핵전략자산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전개한다고 떠들고있다.

이 모든 위험천만한 전쟁책동들에 《북핵도발때문》이라는 보자기를 씌워놓았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박근혜패당이 떠드는 《도발》타령은 북침전쟁도발의 심리적기반조성을 위한 《북악마화전략》의 본격적인 실행이라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

다시말하여 《거짓도 반복하면 진실처럼 들린다.》는 괴벨스의 말대로 《북도발설》을 세상사람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입시킴으로써 북남사이에 군사적충돌이 일어나면 자연히 북이 《도발》한것으로 여기도록 하며 나아가서 저들이 북침전쟁을 도발했을 때 내외가 더불어 우리를 주범으로 락인하게 하자는것이다.

그러나 상대보다 먼저 《도발이야》라고 소리치고 악청을 높이 지르면 자기의 도발감투를 남에게 씌울수 있다고 어리석게 착각하고있는데 박근혜패당의 비극이 있다.

박근혜패당은 《북도발》과 《위협》설을 요란스럽게 떠들수록 우리가 정당하다는것을 반증하는것으로 될뿐이며 오히려 저들의 도발적정체를 더욱 광고하는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북도발설》은 미국의 각본대로 외워대는 앵무새타령

박근혜패당의 《도발》타령은 미국산 앵무새들의 상전따라외우기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미국이 저들의 정탐위성, 간첩비행기로 찍은 우리 공화국의 《이상징후》에 대한 사진자료들과 첩보자료따위를 먼저주면 괴뢰들이 게걸만난 게사니처럼 덥석 받아물고 《북도발》에 대해 왁왁 고아대는 식이다.

먼저주는 자료가 신빙성이 있든없든, 과장된것이든 꾸며낸것이든 무작정 《북도발》이라는 감투만 씌울수 있다면 그만이다.

자료의 객관성에 대해 엄밀히 확인할 필요도 없고 거짓나발의 후과에 대해 걱정할 우려따위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미국상전이 시키는것이고 미국상전이 바라는것이기때문이다.

얼마전에도 우리 당창건경축일을 앞두고 미국은 저들의 정탐위성으로 촬영하였다고 하는 우리의 핵시험장과 로케트발사장사진을 괴뢰들에게 넘겨주어 《핵시험도발》이니, 《미싸일도발》이니 하며 법석 떠들게 하였다.

그러나 정작 당일날 《북이 틀림없이 도발할것》이라며 온 하루 청와대에 들어박혀 우리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만단의 대처》를 고아대던 박근혜의 도끼눈에 비쳐든것은 무엇이였던가.

대결에 미친 무리들을 조롱하듯 노래춤으로 들쑤시는 우리 청년들과 인민들의 경축공연과 무도회광경이였으며 이 웃음폭탄에 맞아 박근혜의 허탈감이 극도에 이르렀음은 물론이다.

조선반도의 항시적인 정세불안과 끊임없이 감돌기 바쁘게 핵폭격기를 금파하며 심술을 부리는가 하면 《천안》호사건과 《지뢰폭발사건》같은 모략사건들을 때없이 조작하고 《북도발》로 우겨대면서 정세를 극단에로 몰아간다.

남조선을 강점한 70년전부터 써먹어온 케케묵은 이 수법이 세상에 통하지 않게 된지도 오래되였건만 미국은 색이 바래고 고삭은 《북도발》이라는 위장기발을 지루하게 쳐들고있다.

이 누더기가 언제나 펄럭거리도록 눈알이 뒤여나오고 불이 더지게 《도발》, 《도발》하며 입김을 쉬임없이 불어대야만 하는 박근혜패당의 불쌍한 그 얼마나 가련인가.

하기는 미국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빼여줄 대국노들이고보면 상전의 《북도발》타령의 확성기가 되여 목대에서 피가 터지도록 개나발을 불어대는것을 기꺼이 숙명으로 여길것이다.

《북도발설》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매국역적들의 궤변

박근혜패당의 《북도발》타령은 미국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원하는 기도문과 같은것이다.

외세의 력써끼를 얻어먹고 사는 대국노들은 상전을 제 마당에 불들어두기 위해 온갖 아양을 다 떨뿐아니라 청승맞게 우는소리를 그칠새없이 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위안은 침략자의 품에 안겨있는것이고 최대의 불안은 외세의 손락에서 떨어지는것이기때문이다.

그래서 《북도발》타령은 친미분자들의 애창곡이 된것이다.

일제강점시기 애비 박정희를 비롯한 친일역적들이 일본이 망하지 않고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마지 않았던것처럼 오늘날 박근혜와 그 패당은 미제침략군이 영원히 남조선을 타고앉아있기를 학수고대하고있다.

이 대국역적들은 전시작전지휘권도 돌려받지 않겠다고 앙탈을 부려 미국에 영원히 넘겨주고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주둔유지비로 천문학적액수를 아낌없이 퍼부어주고있다.

조선반도에 정화적환경이 마련되면 미제침략군이 남아있을 명분이 없게 되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따라서 박근혜패당은 정세가 끊임없이 불안하고 전쟁위기가 격화되면 될수록 미국을 붙들어두는데 좋다고 여긴다.

한마디로 《북도발설》은 친미역적들의 생존에 사활적으로 필요한 산소호흡기와도 같은것이다.

박근혜패당이 우리의 모든 자위적조치들이 취해질 때마다 무작정 《도발》과 《위협》이라고 떠들어대며 상전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전략폭격기가 날아오게 해달라, 핵항공모함을 급파해달라고 떼를 쓰는것도 그래서이고 서해열점수역과 군사분계선일대에서 포사격과 삐라살포 등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으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것도 그때문이다.

박근혜패당은 미국땅에서 터져나오는 《북핵공포》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제 한몸도 건사하기 힘든 미국이 저들같은 주구들을 언제까지 《보호》해주겠는지 몰라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있다.

《북도발》, 《북핵위협》을 구실로 핵악관과 편타콘, 미국무성, 미의회, 미국군수산업복합체들에 역대의 헐세를 바치고 고물같은 무기들을 대량 사주어 상전의 배를 불려주는 값으로 주구의 생존담보서에 《화장억제공약》이니, 《동맹관계확인》이니 하는 수표를 받고서야 마음을 놓는자들이 바로 역적패당이다.

박근혜패당이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조치에 대해 《력민의 비수》요, 《심각한 도발》이요 하며 상전앞에서 아부재기를 치는것은 머리에 눈 이고 다니는 미국의 갓끈이 끊어질가봐 가슴을 조이며 절러대는 절망의 탄식소리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박근혜패당의 《북도발설》은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자들의 생존방식의 하나이다.

《승공》, 《멸공》을 부르짖던 애비로부터 유전받은 뿌리깊은 동족증오심과 남조선의 썩어빠진 제도를 전 조선으로 확대하려는 야망으로 꽉 차있는것이 박근혜의 심보이다.

《드레즈덴선언》이니, 《통일대박》이니, 《통일준비위원회》조직이니 뭐니 하며 제년의 집권기간 《북붕괴》와 《제도통일》의 망상을 실현해보려고 악을 박박 써온 박근혜였다.

그러나 고립과 봉쇄, 제재와 압박의 쇠그물을 갈가리 찢어발기며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무적의 군사강국, 만년미래가 담보된 청년강국으로 더욱 무섭게 솟구쳐오르는 우리의 위대한 힘에 부딪쳐 《신뢰프로세스》니 뭐니 하는 반통일궤변들이 산산조각나고 이제 와서 대결분자들은 제 명줄을 걱정해야 하는 가련한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박근혜패당의 《도발》녀두리는 바로 반북대결정책실패를 가리우기 위한 구차한 변명이고 패배감과 절망감의 탄식인것이다.

원래 리성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면 달라지도록 개나발을 불어대는것을 기꺼이 숙명으로 여길것이다.

《북도발설》은 심각한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권모술수

《식물대통령》 박근혜는 제년의 반인민적악정과 무지, 무능, 탐욕이 불아온 최악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북도발》타령을 매일같이 내지르고있다.

그러나 마른 가랑잎으로 불을 감쌀수 없다.

《북도발설》을 지푸래기로 잡아 파멸의 수렁에서 벗어나보려는 박근혜의 알은 잔꾀는 빤히 들여다보인다.

박근혜가 《대통령》방거지를 뒤집어쓰기 위해 람발한 수백가지 《공약》은 어느 하나 실행된것이 없고 경제는 파국의 늪에 더 깊이 빠졌으며 민생은 사상최대로 악화되여 도처에서 파업과 시위가 그칠줄 모르고있다.

일본과의 굴욕적인 《군위안부협상》타결은 치욕의 《제2의 한일협정》으로 락인되여 그것을 무효화하라는 각계의 비난과 요구가 그칠줄 모르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농민에게 물대포를 쏘대 목숨을 빼앗은 폭력《정권》에 대한 울분과 저주의 목소리는 온 하늘땅을 진감하고있다.

매국적인 《싸드》배치책동은 각지의 격렬한 반대배격에 부딪치고 전통적인 지지층이라 하던 경상도지역 민심도 등을 돌리였다.

엎친데 덮치는 격으로 우병우사태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사건까지 터져 무때 《정권》의 썩은내는 청와대는 물론 온 남녘땅에 진동하고있다.

박근혜역도에 대한 민심의 원성과 분노는 폭발직전에 이르렀으며 민족과 력사는 이미 년여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박근혜는 시시각각 목을 조이는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길을 동족을 물어뜯는데서 찾으려 하고있다.

《북도발》북풍을 요란하게 두드려대며 《안보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장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는것은 일찌기 박근혜가 청와대《공주》시절 《유신》독재자 박정희로부터 물수에 박히도록 배운 《통치술의 요령》이다.

이로부터 박근혜는 《내부의 분렬과 혼란을 가중시키는것은 북이 원하는 핵도발보다 더 무서운것》이라느니, 《리념과 정파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하나가 되여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파쑈의 칼날을 휘두르고있다.

또한 《북핵위협》이 눈앞에 들이닥친 《비상사태》에서 내부결속을 도모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보수세력을 규합하여 재집권의 출로를 열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이렇듯 온갖 권모술수를 다 써서라도 다음해 《대통령선거》에서 심복을 당선시키고 퇴임후 《섭정》을 통해 죽을 때까지 권력을 휘두르면서 호의호식하겠다는것이 청와대안녀의 흉심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심히 오산하고있다.

《북도발설》은 더이상 박근혜의 만병통치약도, 만능의 방패도 아니다.

남조선의 각계층을 비롯한 온 겨레는 박근혜가 떠벌이는 《북도발설》의 정체를 날날이 꿰뚫어보고있으며 요귀의 마법이 어떤것인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박근혜는 수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제년이 겁겁이 뒤집어쓰고있던 《북도발》, 《북핵위협》, 《안보위기》의 면사포들이 다 벗겨지고 늙다리의 알몸뚱이상태가 된지도 모른채 게거품을 물고 대결을 부르짖는 자화상이 그 얼마나 꼴불견인지 깨달아야 한다.

박근혜는 미친년처럼 돌아치며 《북도발》, 《북핵위협》을 떠들것이 아니라 청와대안방에 들어박혀 력사책을 펴들고 제 애비를 비롯한 력대 도발자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착실히 공부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천추에 용납 못할 극악한 민족반역자 박근혜가 우리를 겉고들며 웨쳐댄 도발망발들은 빠짐없이 계산되고있으며 최후의 결산은 무자비하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온 겨레는 독사의 혀바닥을 날름거리며 동족대결의 도발악담으로 명줄을 이어가는 박근혜의 추악한 생존방식과 녀두리질의 본질을 똑바로 보고 각성된 힘으로 민족의 화난거리를 력사의 무덤에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론 평 원

급격히 높아가는 반미감정

공화당주도의 미국회가 벌려놓은 9.11사건소송법안통과놀음에 아랍세계가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9.11사건소송법안의 정식이름은 《테로지원국에 맞서는 정의법》으로서 9.11사건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사우디아라비아정부나 관리들을 대상으로 미국재판소에 손해배상소송을 걸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미국회 상원과 하원은 이미전에 이 법안통과놀음을 벌려놓았었다.

그런데 오바마가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동맹관계가 악화된다는것을 구실로 내대며 지난 9월 23일 법안에 수표하는것을 거부해나섰다.

미국회 상원은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기 위하여 9월 28일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그 안을 통과시키는 표결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법안은 압도적인 지지속에 통과되였다. 그날에 하원 역시 압도적인 지지로 법안을 재가결하였다.

아랍나라들이 분격을 터뜨리며 미국의 처사에 반발해나서고있다.

특히 미국의 표적이 된 사우디 아라비아가 반감을 터뜨리고있다.

그도 그럴것이 미국회가 9.11사건의 주범 19명중 15명이 사우디 아라비아인들이며 그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정부의 재정적후원을 받아 테로를 감행하였다는 뻐뻐한 국내여론에 맞장구를 치면서 법안통과놀음을 벌려놓았기때문이다.

9.11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이 떠들어대는 책임론을 원래부터 인정해오지 않은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번에도 그것을 완강하게 부정해나서면서 미국회가 강행한 법안에 대한 재가결은 오랜 동맹관계를 최악의 위기에 빠뜨려놓는 행위로 된다고 격분을 표시하였다. 또한 미국이 9.11사건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자국에 대한 상소를 허용하는것은 《등뒤에 칼을 박는 식》이라고 하면서 워싱톤과의 안전 및 정보분야에서 협력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나라 외무성도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이 만약 법을 제택하는 경우 수천억US$의 미국재산을 처분하며 미국과의 공식련계, 미군의 군사기지리용 등을 모두 동결할것이라고 위협해나섰다.

아랍추장국련방을 비롯한 지역 나라들도 이 법안으로 미국이 손해를 보게 될것이라고 주장해나서고있다.

9월 상순에 미국회 하원이 법안통과놀음을 벌려놓은 후 얼마 안있어 뉴욕에서 진행된 만협조리사회 외무상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미국의 처사가 국제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신랄히 비난해나섰다. 그러면서 9.11사건소송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국제판계에서 위험한 판례가 만들어지며 국가들간의 평등과 같은 국제적원칙이 훼손되여 전세계적인 혼란과 불안정을 조성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해나섰다.

외신들속에서는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려하려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움직임에 여러 아랍나라들이 동조해나설수 있다는 평들이 나오고있다.

미국회의 법안통과놀음을 지켜보면서 아랍세계는 미국이 저들의 리익만 우선시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을 감행하는 과정에 산생시킨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오만하고도 일방적인 처사에 참을수 없는 모욕과 분노를 느끼고있다.

지금 많은 아랍나라들속에서는 《만테로전》에서 지난 시기 미군이 저지른 반인륜적만행을 고발하는 글과 사진들을 솔직물들에 대대적으로 내보내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있다. 아랍인들이 트위터에 일본과 월남에서 감행한 미군의 살륙만행,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형무소에서 수감자들을 조롱하는 미군의 인권침해행위 등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집중적으로 게재하고 잡지들에 미국의 반인륜적만행을 보여주는 풍자만화들을 싣고있는것도 모두 반미감정의 표출이다.

에멘의 한 변호사는 모든 일가친척들을 미국주도의 《만테로전》으로 다 잃었다고 하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만행들을 고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나서 미국의 이번 법안통과놀음은 한갖 위선에 불과하다고 까밝혀놓았다.

미국내의 여론들도 이번 법안문제로 《친구》들을 다 잃고 그 불똥이 또다시 미국에 들씌워질수 있다고 개탄하고있다.

분석가들은 이번 법안통과놀음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법을 지배하고 명령하려 한다는 견해를 세상사람들앞에 확고히 해주었으며 미국이 전세계에 자기의 법과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한결같이 평하였다.

주권국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 사법권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는 보편화된 국제법적원칙도 무시하고 자기 의사를 강요하기 위해 정치경제적강압조치를 취하거나 내정에 간섭하는 미국이야말로 국제법정에 올라야 할 첫째가는 대상이다.

본사기자 라 명 성

조선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으며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있다고 언명

로씨야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가 9일 로씨야 ITV방송과의 회견에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이 억제용핵무기보유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부추기고있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현 세계는 랭전시기보다 덜 안정되고 덜 조용해졌으며 이미 국제적인 렬강이 2개가 아니라 더 많아지고 핵무기보유국들의 수도 늘어났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 일어난 국제적사변들은 핵무기포기가 아니라 핵무기보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리비아가 핵무기계획을 스스로 포기한 대가를 치른데 대해 언급하였다.

조선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으며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무엇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보유권리를 가지지 못하겠는가고 반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그 무엇으로써도 덮어버릴수 없는 성노예범죄

남조선뿐아니라 일본에서도 아베가 성노예피해자들에게 사죄편지를 보낼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이것은 정의를 사랑하고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 민심의 요구이다. 그러나 일본당국자는 사죄편지를 보낼 기미를 꼬물만큼도 보이지 않고있다.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다.

일본수상 아베는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뇌까리면서 《합의》내용을 쌍방이 성실히 리행하는것이 필요하다는 나발을 불어댔다. 이보다 앞서 일본외상 키시다는 어느 한 기자회견에서 《합의》는 이전에 발표된 그대로이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합의된것은 일체 없다.》고 하면서 사죄편지를 보내는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문제의 일본남조선《합의》라는것은 지난해 12월말 일본반동들이 민족대기쁜인 《사죄》와 녹거리자금지출로 특대형반인륜범죄인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기로 남조선괴뢰들과 《합의》한것을 보고 말한다.

일본반동들은 이 《합의》의 핵심이 성노예소녀상을 철거하는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리행하라고 남조선괴뢰들을 압박해나서고있다.

성노예소녀상은 지난 2011년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각계층의 민심을 반영하여 일본대사관앞에 세워진것이다.

한생을 고통속에 보내는 성노예피해자들 형상한 이 소녀상은 오늘도 과거 일본의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죄악을 만천하에 폭로하고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있는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대사관앞에 세워져있는 성노예소녀상을 철거시키기 위해 음흉양으로 책동해왔으며 이 《합의》를 통해 어떻게 하나 그것을 실현해보려고 달려들고있다.

성노예소녀상철거문제는 일본반동들이 오늘에야 비로소 들고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남조선은 물론 카나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성노예상들이 세워질 때마다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해 돈을 뿌려가며 치졸하게 놀아댔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로스안젤스에 성노예소녀상이 건립되였을 때에는 《녀성들을 위한 아시아평화기금》이라는것을 통해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넉두리를 늘어놓았다가 비난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뉴저시주 팰리 씨이즈파크시에 건립된 일본군성노예추모비를 철거시키려고 흥정놀음을 벌리다가 세계면전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하기도 하였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정부의 고위인물들은 저저마다 나서서 파렴문제가 완벽하게 법적으로 해결되였다느니, 정부가 지금까지 발전한 문서에는 군대와 관헌에 의한 강제련행자료가 없었다느니, 성노예라는 말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망발들을 마구 줴쳐대고있다.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모르는 섬나라사무라이후예들만이 할수 있는 추태이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국가의 주도하에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감행된 집단적강간행위로서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녀성인권유린범죄,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이를 립증해주는 증언자료들과 공식문건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1992년 11월 영국주간잡지 《에코노미스트》는 일본군성노예강제련행에 당시 내각수상이며 특군상이였던 도죠가 관계하였다는것을 증명해주는 전시전보를 공개하였다.

대만주둔 일본군사령관이 도죠에게 보낸 전보에는 《남방의 군본부로부터 50명의 〈위안부〉들을 브루네이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것과 관련하여 나는 헌병에 의해 선발된 다음의 3명의 인물들을 〈위안소〉관리인으로 파견하도록 허락해줄것을 당신에게 요청하는바이다.》라고 씌여져있었다.

일본방위성문서고에서 드러난 비밀문서들에도 침략전쟁당시 정부가 각 부대들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끌어다가 운영할데 대해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

성노예강제련행집행자의 한 사람이였던 요시다 세이지는 자기가 직접 지휘하여 강제련행한 성노예만도 1000명이 넘는다고 하면서 그들을 말그대로 《제조해갔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한 신문기자와의 회견에서 조선녀성들에 대한 강제련행은 당시 일본로무보국회가 담당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야마구찌현로무보국회 책임자로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하여가는노릇을 했다고 실토하였다. 그의 증언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마을에 도착하면 우선 녀성전원을 길가에 끌어냈다. 도망치면 폭검으로 때려눕힌 다음 트럭에 실었다. 마을은 온통 수라장이 되군 하였다. 이렇게 모은 녀성들을 화물렬차와 배에 짐짝처럼 실어 시부군사령부에 보냈다.》

미국 존즈 홉킨스종합대학의 한 교수가 공개한 《일본군위문시설》이라는 제목으로 된 문서에는 《엄격한 규률하에서의 〈위안소〉설치는 일본군이 일정한 규모를 넘는 모든 지역에서 군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혀져있다.

몇해전 일본의 대표적인 력사연구단체인 력사학연구회도 성명을 발표하여 군부의 관여하에 강제련행된 성노예들이 존재한것은 명백하다고 하면서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랍치형태의 강제련행사실이 밝혀졌고 《조선반도에도 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녀성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전쟁마당에 끌고다니면서 치욕스러운 성노예살이를 강요한 일본의 과거죄악을 고발하는 이 자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것들을 일일이 다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

력사에 다른 나라 녀성들을 전쟁마당에 끌고다니는것을 정책화, 제도화하고 그들의 생명과 정조를 무참히 유린침해한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나라는 오직 일본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도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매춘부》로 모독하며 성노예의 강제련행증거가 없다고 생억지를 부리는 일본반동들의 추태는 그야말로 섬나라족속의 속된 근성과 도덕적지렬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은 특대형반인륜죄악인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책임을 한사코 회피하며 그것을 어떻게 하나 어물쩍해 묻어버리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저들이 저지른 죄악을 애써 감추어보려고 아무리 발악해도 력사의 진실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본사기자 렴 원

ㄱ-61165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